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

이동용 지음

쇼펜하우어 《인생론》으로 되찾는 삶의 의미

지은이 이동용

건국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쇼펜하우어, 돌이 별이 되는 철학》, 《나르시스, 그리고 나르시스즘》, 《바그너의 혁명과 사랑》, 《삐뚤빼뚤 생각해도 괜찮아》(공저)가 있으며, 《교실혁명》, 《산만한 아이 다정하게 자극주기》를 우리말로 옮겼다. 논문으로 〈릴케의 작품 속에 나타난 나르시스와 거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나타난 광기와 진실한 사랑〉이 있다. 현재 건국대학교와 협성대학교, 철학아카데미를 비롯해 병원, 복지회관, 문화센터 등 철학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강연하는 현장 인문학자로 활동 중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

쇼펜하우어《인생론》으로 되찾는 삶의 의미

종이책 초판 발행일

전자책 발행일

전자책 최종 업데이트

지은이

펴낸이

펴낸곳

전무

주간

책임편집

편집

미술

영업

관리

등록

주소

전화

블로그

전송

전자우편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

이동용 지음

*Darenga
und
Paralipomena*

쇼펜하우어 《인생론》으로 되찾는 삶의 의미



일러두기

1.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본은 《쇼펜하우어 인생론》(육문사, 2012)이다.
2. 본문에 사용한 기호의 쓰임새는 다음과 같다.

《》: 단행본

〈〉: 잡지, 논문, 영화명, TV 프로그램명 등

“ ”: 인용

‘ ’: 강조

지극히 인간적인
철학에 관하여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집 앞의 헌책방을 서성대다 한 권의 책을 꺼내 들었다. 저자가 누구인지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제목에 사로잡혔다. 또렷하게 각인된 문장은 없지만 ‘누구나 힘들게 산다’는 내용이었다. 그 말이 왜 그리도 위안이 되었는지 길을 걸으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인생론》은 나와 인연을 맺었다. 그 인연은 나의 질풍노도 시기를 함께 해주었고, 그 길고 어두운 시간도 극복하게 해주었다.

삶이 힘들 때 위안이 되어주는 이는 많지 않다. 철학 역시 마찬가지다. 위안을 주는 철학은 드물다. 쇼펜하우어의 글에는 힘이 있다. 그의 잠언들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을 찾는다. 그의 오아시스처럼 고독한 말은 해묵은 갈증을 채워준다. 염세주의 철학은 싸우고 경쟁하라는 이성적인 말들과는 달리 이 잔혹한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준다. 이 세상은 논리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 모든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글이다. 염세주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잠언에는 전혀 새로운 구조로 세워진 지혜가 담겨 있다.

소크라테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고 느껴질 때, 즉 아포리아Aporia 상태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철학이 도움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지쳐서 가던 길에 덩그러니 서 있는 느낌이 들 때, 쇼펜하우어 철학은 묘하게도 위안이 된다. 그의 철학은 개념이 아니라 인생을 이야기한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 즉 신이나 정의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그의 사상은 삶에 대한 지혜로 가득하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이들에게 염세주의 철학은 보석처럼 다가올 것이다.

생의지의 부정은 염세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진정한 체념의 상태에서 마음은 평정을 찾기 때문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고의 상태다. 쇼펜하우어는 순수한 인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 의지로 채워진 시선으로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만 보일 뿐이라고 충고한다. 상처가 많은 인생에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사는 현대인, ‘난 문제없어!’라며 웃는 얼굴로 치장하고 살아야 하는 가련한 인생에게 진정한 웃음을 선사한다.

이 책은 2014년 여름학기 철학아카데미에서 강의한 <위안의 철학 쇼펜하우어 철학>을 기반으로 했다. 《인생론》을 주교재로 택한 수업이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교재로 하여 같은 해 봄 학기에 진행된 <돌이 별이 되게 하는 염세주의 철학>의 맥을 이어간 수업이었다(이 강의록을 기반으로 전작 《쇼펜하우어, 돌이 별이 되는 철학》이 지난해 출간되었다). 강의실에는 삶에 관한 위안의 목소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치열하게 강독에 집중했다. 그 뜨거운 번민의 기록이 이 책을 만들었다.

《인생론》은 삶을 철학적으로 고민한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집약된 책이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은 고전으로 꼽힌다. 고전은 그 책 한 권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그 책을 읽는 도중에 또 다른 책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고전의 특징이다. 이 책을 읽어야만 할 것 같고 또 저 책을 읽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고전은 수많은 책들이 함께 얹힌 커다란 도서관과 같다. 여러 사상이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권을 이해하고 나면 도서관 지도를 갖게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완독한 후의 뿌듯함은 남다르다. 한 권의 고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커다란 업적이자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각은 자기 자신과 인생, 그리고 세상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찾게 할 것이다.

2015년 3월
수유리에서

63세 노장 철학자가 집대성한 인간 성찰

《인생론》은 어떤 책인가?

서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라는 책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책을 발견할 수 있는데, 책마다 두께와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완역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서는 너무 두꺼워서 두 권으로 나뉘었을 정도인데 손으로 두께를 재 보면 검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더 추가해야 할 분량이다. 내가 구입한 디오게네스 판 전집만 해도 그 두 권을 다시 두 권으로 나눠서 총 네 권의 문고판으로 만들어놓았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보다 더 두꺼운 분량이 될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손을 가득 채울만큼 두꺼울 것이다. 한 손 가득!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그림이다. 이 책이 한국어로는 아직 완역된 적이 없어 아쉬울 뿐이다.

《인생론》의 묘미, 아포리즘

아포리즘을 흔히 잠언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인생론》이라고 번역하는 책의 원제는 《파레르가 운트 파라리포메나》이다. 독일어 번역으로는 “바이베르케 운트 나흐트레게

” 이고, 직역하면 ‘함께 생겨난 작품들과 뒤이어 생겨난 것들’이

된다. 이것을 어떤 이는 《소품과 부록》이라 번역했고, 또 다른 이는 《여
록 과 보유 》라고 번역했고, 또 다른 사람은 《수필과 이삭줍기》라
고 완전히 의역을 하기도 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작은 철학적 글들’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1권에는 ‘철학사에 대한 단편적인 글들’이 실려 있다. 그 외 눈에 띄는 장으로는 ‘대학철학에 관하여’, ‘유령을 본다는 것과 그것과 관련한 것들에 대하여’, ‘삶의 지혜를 위한 잠언들’ 등이 있고, 2권에는 본인의 철학에서 자주 논쟁거리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차적 설명이 실려 있다. ‘자살에 관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과 가르쳐진 것에 관하여’, ‘글쟁이들과 문체에 관하여’, ‘독서와 책들에 관하여’, ‘여성에 관하여’ 등이 그것이다.

《인생론》은 한마디로 이것저것 모아놓은 책이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이 아니다.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은 글들을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실어놓은 것이다. 이것이 전통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철학은 체계를 중요시했다. 모든 부분들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그런 구조 속에서만 의미를 지닐 뿐이었다.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학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철학자의 생각과 글은 일종의 체계를 통해서만 표출되었다. 전통적으로 모든 것은 체계를 갖춰야만 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전통에서 벗어났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철학의 영역에 새로운 문체를 들여온 선구자인 것은 사실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한다. 형이상학도 그런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문제는 왜 인생을 논하기 위해 잠언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이전의 철학자들, 즉 그의 선배들은 체계와 이성적 논리로 철학했다. 하지만 삶이 체계를 갖추고 있을까? 삶이 이성적일까? 삶이 이성적이라면 모든 게 간단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는 이런 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방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결론은 어떤 저항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신정론》에서 지금 당장의 세계를 가장 좋은 세계라 평가했다.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론은 칸트와 헤겔에 와서 정점에 달한다. 특히 헤겔의 역사관은 참으로 낭만적이다. 헤겔은 역사가 오로지 발전만을 거듭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자, 이제 솔직해져 보자. 정말 지금 이 현실이 이성적일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들이 정말 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이 현상들이 합리적이며 내일은 더 합리적일까? 세상과 인생은 이성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성적이지 않은 인생을 논할 때 체계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인생을 논할 때 가장 적합한 문체는 잠언일 수도 있다. 잠언은 아포리즘

을 번역한 개념이다. 잠언은 독립된 형식을 취하지만 하나의 통일된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지혜가 담겨 있는 짧은 글이다.

매 순간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는 잠언으로만 답변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때는 그 대답이 가능하지만 다른 때는 그 대답이 맞지 않

을 수도 있다. 잠언은 상황 이해를 전제로 한다. 게다가 단편적이어서 다른 잠언과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잠언을 읽는 독자는 다양한 잠언을 잘 조합해내야 한다. 《인생론》에 실린 잠언들은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모아 놓은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결정적인 답변이 담겨 있어서 읽는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인생론》은 1851년 즉 쇼펜하우어가 63세에 집대성한 수준 높은 책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다소 알고 있어야 이해가 수월하다.

1



*Parerga und
Paratipomena*

유한성에
대하여



삶의 시간성에 대하여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시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이면서 동시에 시간적 존재다.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는 이성적 인간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이성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시계처럼 정확한 사람은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시간은 공간과 함께 현상의 법칙을 일궈내는 핵심이다. 따라서 자신을 시간 속에 가두는 것은 현상에 가두는 것과 같다.

어렸을 때 시계 초침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놀이를 했었다. 일정하게 움직이는 초침에 집중해보았다. 초침이 한 바퀴 도는 데 꽤 오래 걸렸다. 두 바퀴째였을까, 아니면 세 번째 바퀴에서였을까? 나는 정신을 놓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 10분 정도가 훌쩍 지나간 걸 뒤늦게 알고 화들짝 놀랐다. 이미 열 바퀴나 아무런 의식도 하지 못한 채 흘러보낸 것이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잃어버린 10분이 고민이 됐다. 도대체 그 시간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 10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일까? 그 10분 동안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두 바퀴 정도는 의식적인 삶이고 다른 열 바퀴는 의식하지 못하고 흘러 보낸 삶이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시간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어렸을 적, 그가 16세가 되던 1803년 봄부터 1805년 첫 날까지 거의 2년 동안 여행하며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것 같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진도에 맞춰 공부한 것을 생각하면 2년이란 시간을 잃은 것처럼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행은 시간을 요한다. 하지만 여행을 하는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쇼펜하우어는 그 2년 동안의 긴 여행을 통해 공부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믿었다. 그때 고전을 공부할 시점에 여행을 했다는 사실이 엄청난 심적 부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에서 얻은 지혜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지니고 있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의 문제이다. 쇼펜하우어의 책을 책꽂이에 꽂아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읽었다 는 시인 릴케도 시간에 대해서 많은 시를 썼다.

이 시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말이며 “시간을 잡아두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시간을 잡아둔다는 것은 시간을 의식 속에 둔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어릴 적 시계 놀이로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초침을 따라갔던 그 두 바퀴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시간은 잡아둘 수 없다. 모든 시간을 다 의식 속에 담고자 한다면 우리 머리는 터지고 말 것이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면서 겁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 해도 세월이 흐르면 부서지고 만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삶의 현상적 형식에 관한 단상

시간은 공간과 함께 현상의 형식이다. 눈에 보이는 경험 세계의 형식이라는 말이다.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동시에 죽어간다. 출생과 죽음은 삶의 형식인 동시에 시간의 형식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탄생을 기억하고 죽음을 외면한다. 기억에 담는 것도 태어나는 것에 한한

다. 죽음은 잊으려 한다. 살아 있는 존재는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

삶은 일차적으로 시간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삶이다. 싯다르타가 궁궐 밖에서 인식해낸 것도 생로병사였다. 모든 생물은 생멸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시간을 의식하는 순간 삶을 의식하게 된다. 나이가 몇이냐고 묻는 순간 세월을 의식하게 된다. 나이를 알고 있는 한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늘이 며칠인지 올해가 몇 년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 속에서 의식하고 살아간다.

위의 인용문에서 사족을 빼고 주어와 술어만 남기면 삶은 욕구이다. 욕구가 두 번 등장하므로 ‘삶은 욕구이며 욕구이다’가 된다. 첫 번째 욕구는 시간적 생존에 대한 욕구이며 두 번째 욕구는 생존을 영속시키고자 하는 욕구이다. 둘은 서로 닮아 있지만 같지 않다. 시간적 생존에 대한 욕구는 시간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관련한다. 시간을 지키려는 의지, 언제나 시간을 기억하고 의식하려는 의지이다. 시간표를 짜고 시간에 따라 움직이며 모든 것을 계획 속에 두려는 것이다. 두 번째 욕구는 생존을 영속시키고자 하는 욕구,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로 모순을 일으킨다. 시간은 시작과 끝의 끊임없는 연속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시간 속에 머무르려 하고 동시에 시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려는 이런 욕구는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일축한다. 그럴 수도 없고 가능하다고 해도 종교적인 교리로서만 가능할 뿐이다. 종교에 자신을 맡기기보다 스스로 시간에서 해방되려는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철학의 과제이며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욕망은 시간 속에 있다. 삶은 고뇌하고 충족되고 또다시 고뇌하고 충족되는 끊임없는 욕구의 반복이다. 이 반복적인 시간 속에서 전진은 환상일 뿐이다.

염세주의 철학은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삶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라는 지혜를 심어준다. 쇼펜하우어는 삶에 연연할 때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생존에만 연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담을 수 없는 체로 물을 끄는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안 되는 것에 얽매일 때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은 언제나 곁에 있다.

쇼펜하우어의 구원사상은 간단하다. 한 가지만 해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쇼펜하우어는 그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었다. 하나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험적 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경험적 의식은 기억과 연관 있다. 한때 경험한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다. “평온한 중심점”을 지향해야지 “원의 주위”를 돈다고 마음에 안정이 오는 것은 아니다. 밖으로 나돌면 피곤해지기만 할 뿐 위로는 없다. 릴케의 사물시 〈표범〉은 바로 이런 현상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누가 밖에서 표범을 도와 준 것이 아니다. 표범은 우리 안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었다. 창살이 스쳐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죽을 뻔한 것이다. 표범이 얼마나 안달복달하며 창살 앞에서 왔다 갔다 했을까 하는 것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왔다 갔다 하는 행위의 반복이 표범을 죽일 뻔했다. 그러나 두 번째 연에서 표범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날렵한 발걸음으로 가장 작은 원을 중심으로 돌고 또 돈다. 하나의 커다란 의지가 있는 곳을 맴돈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하면 “평온한 중심점”이다. 그 평온 속에서 개체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거기서는 객관도 주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범은 자신의 눈으로 들

어온 형상을 잡아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 상은 개체의 중심에 이르러 존재하기를 그만둔다. 사물이 그냥 사물로 존재할 뿐이다.

해탈로 이끄는 인식의 힘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개인마다 주어진 문제상황도 다르고 대답의 현상도 다르다. 똑같은 개인이 없는 것처럼 인식도 다양하다. 인식은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삶을 삶답게 해준다. 삶의 모든 과정은 인식으로 향하고 있다. 개인차는 있지만 누구나 인식을 향해 달려간다. 바다 속에 던져진 측심연처럼 개인마다 인식의 단계가 다양하다. 사람마다 손금이 다르듯 인식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인식은 자기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삶은 의지의 반영일 뿐이다. 의지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삶이다. 삶은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의지는 근거가 없다.” 근거 없는 의지를 알아보는 것은 오로지 인식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인식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한다. 인식을 “삶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선이며 해탈로 이끄는 참된 복음”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보다 더 높은 칭찬이 있을까. 인

식은 인간이 풀어내고 이해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해탈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인식은 천벌에 해당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식은 복음에 해당한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식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혁명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식 지상주의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의 철학은 한 마디로 깨달음을 위한 철학이다.

하지만 깨달음은 어렵다. 인식은 쉬운 게 아니다. 어떨 땐 귀찮기만 하다. 범인은 묻는다. ‘꼭 해탈해야 하는가’하고 말이다. 왜냐하면 해탈에는 큰 희생이 따르는데 희생은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인식은 구원의 열쇠이다. “인식이 생기자마자 욕망은 사라져버렸다”고 하지 않았던가. 해탈의 순간에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은 인식이다. 그 인식은 의지에 봉사하는 원래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인식이다. 인식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인식이 하는 일이며, 바로 구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식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래서 엄한 선생의 음성과도 같다. 어떤 땐 어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땐 으박지르기도 한다.

시간적 존재와 동경하는 존재

인간은 언제나 혼자라 항상 곁에 있어줄 사람을 그리워한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언제나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 아름다운 추억 속에는 언

제나 사랑했던 누군가가 있다. 당시에는 가장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지금 돌아보면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인간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이다. 어렸을 땐 무한한 미래를 동경하고 늙어서는 한없이 짧은 과거를 동경한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다.

인생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뉜다면, 모두가 백 살까지 살겠노라고 큰소리치는 요즘은 오십 세가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오십 세부터는 내리막길이라는 얘기다. 이제부터는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라는 것이다.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해도 누구나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

야 한다. 아무리 버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운명이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불안한 미래와 막연한 동경의 대상인 과거 사이인 현재는 언제나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고독과 아픔만을 느끼게 해준다. 현재는 언제나 불만족스럽다. 사진을 찍고 나면 항상 불만족스럽다. '왜 이 모양으로 나왔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정상이다. 사진 속의 모습이 똥배가 나왔다고 불평한다. 정상이다. 문제는 그 똥배가 현실 속에도 있는데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그것을 흥측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이다.

언제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자신의 모습은 초라해 보인다. 그것이 현재가 주는 인식이다. 현상은 다양하다. 현상계는 다양성이 본성이다. 현상의 원리는 시간과 공간이며 시간적 존재는 현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다양한 것은 다양한 단계를 낳고 그 결과 여러 단계들은 경쟁을 하게 된다. 경쟁은 그렇게 현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다. 현재는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만족시킨 적이 없다.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3권의 모토로 쓴 이 문구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인용한 것이다. 현실세계를 그림자로 보는 플라톤의 세계관을 차용한 셈이다. 우리가 실체라고 믿었던 것들은 모두 시간 속에서 생겨났다 소멸하는 허상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

이 허무하다. 하지만 영원한 존재는 근원이 없다. 근원이 없으니 변할 수도 없다.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다. 영원한 존재는 현상적 존재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욕망을 완전히 채워 주는 현실” 혹은 “의지를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현실”은 결코 발견할 수가 없다.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미숙하며 문제 상황일 뿐이다. 현실이 완벽하다면 걱정도 없을 것이고 불안도 없을 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사람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피곤한 삶이 문학과 철학을 요구한다.

현실은 우리를 만족시킨 적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적응하기 급급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하지 못한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정신없이 살아간다.

현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바로 철학을 하게 한다. 열매가 익어가듯이 계속되는 질문은 답을 익어가게 한다. 햇빛을 잘 받고 물이 충분히 주어져야 열매가 튼실해지듯이 질문이 많아야 답이 알차다.

현실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유는 생존과 현실 세계는 모두 가상이며 의지의 영상이며 단순한 현상일 뿐 결코 물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이해되는 답은 아니지만 자책할 필요는 없다. 쇼펜하우어가 독서의 방법으로 제시한 반복을 적용하면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읽어보면 된다. “생존과 현실 세계”에서 생존은 인생이나 삶으로 바뀌 써도 무방하다. “현실 세계”는 인생이 있는 곳,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이 가상이며 영상이며 또 현상이라고 한다. 현상계는 가상이며 영상일 뿐 물자체가 아니다. 플라톤도 이렇게 보았고 칸트도 이렇게 생각했다. 쇼펜하우

어는 이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은 현실을 무시했고 칸트는 물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자신의 길을 걷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현실이 “알맹이 없는 껍질이거나 거짓”임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다. 현실은 허무한 가상으로 “마야의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마야의 베일은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자주 언급했던 개념이다. 이를 통해 설명하려는 것은 베일을 벗기고 난 이후의 세계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베일 이면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믿음이다.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의지이다. 의지는 현상과 무관하다. 의지는 시간과 상관없다. 의지는 칸트의 물자체에 속한다. 하지만 의지는 인식의 도움으로 알 수 있다. 삶에 대한 의지가 하나의 삶을 제공했다면 의지는 인식을 통해 또 다른 삶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며 논리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의지를 얘기할 때 거부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탈로 이끄는 새로운 인식에 의한 의지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잠언을 공부하기는 무척 어렵다. 《인생론》은 잠언으로 구성된 책이다. 짧은 텍스트 하나로 쇼펜하우어 철학 전체를 살피기란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그것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벽돌임을 인식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의지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결국 모든 답을 의지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를 거부하면서도 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

인다. 거부해야 할 의지와 받아들여야 할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동시에 그것을 알면 쇼펜하우어를 이해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의지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다. 노력은 만족한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노력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의지의 본래 모습이다. 의지는 살아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무리 생활이 넉넉해도 인간은 그것만으로 행복을 다 가졌다고 말하지 못한다. “의지는 생존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먹고 산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 생명이란 의지가 노력을 통해 보여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의지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실체는 현상이 아니다.

현실의 이중적 의미

쇼펜하우어 철학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죽음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평가이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인정하도록 무한히 애를 쓴다. 동시에 그는 삶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가르친다. 그런가 하면 죽음은 안 된다고 말하며 삶만이 진짜라고 일러주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철학적 놀이에 동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 할지라도 그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분할 뿐이다. 밀물이 오면 밀물을 즐길 줄 알아야 하고 썰물이 되면 썰물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즐길 줄 안다는 것은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 의미를 알면 어떤 순간에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일단 염세주의 철학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 염세주의는 현실의 무가치를 가르치는 철학이다. 하지만 그것이 염세주의 철학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인식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의 경지라고 한다. 염세주의 철학의 묘미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다가가는 훈련에 있다. 희망이란 희망은 모조리 죽여버린 절망의 순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사한다. 심연 속에서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한다.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다.

일단 존재의 무의미성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인식이 생겨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 싯다르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하여 보리수나무 아래서 6년의 고행을 했다. 쇼펜하우어는 “미친 듯이 공부”했고 또 “매일 밤늦게까지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 독서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그의 염세주의 사상이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것처럼 허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존재의 허무성을 보지 못한다면 훈련을 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허무하다. 모든 시간적 존재는 사멸할 운명이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나게 마련이다. 시간과 관련한 모든 노력은 시간 속에서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하지만 삶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무의미하지만은 않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그토록 삶의 무의미성을 역설했다.

염세주의 철학은 삶의 허무함과 무의미함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삶을 찬양하는 순간도 있다. 다만 좋은 것은 짧게 느껴지는 게 타이라면 타이다. 마치 봄이 짧게 느껴지듯이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끊임없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역설한다. 하지만 언제나 부정에서부터 말을 꺼내다보니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만다. 거기에는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식의 독서방식이 필요하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은 과거의 산물일 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 해도 과거에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무한한 과거의 연속일 뿐이다. 바로 이런 인식이 또 다른 인식을 낳는

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의미한 현재라 할지라도 현실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과거보다 낫다.” 이 말은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좋은 말이 귀에 들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의미한 현재라 해도 그것이 현실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현재는 과거보다 낫다. 현실성은 과거의 그 무엇보다도 더 낫다. 과거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은 미련한 짓일 뿐이다. 아무리 올바른 소리, 혹은 진리라 해도 그것은 과거의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카뮈는 갈릴레이의 선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갈릴레이는 중요한 과학적 진리를 알아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아주 쉽게 그 진리를 포기해버렸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잘한 일이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만큼 진리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실존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다. 가치나 진리 같은 것은 삶 자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삶이 허무하고 헛되다 해도 “가장 의미 있는 과거보다 낫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소리가 이해될 때 염세주의는 친근한 목소리로 들리게 될 것이다. 비극을 관람할 때 전해지는 연민과 공포는 그 자체로 보면 소름끼칠 정도로 끔찍하겠지만 그 이후에 찾아드는 감격은 카타르시스를 동반한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고행하듯이 하라고 일렀다. 반복해서 읽으라고 권했다. 그것도 강한 인내심으로 견뎌내라고 했다. 이것은 분명 고행이다. 고행을 통해 이러한 카타르시스를 스스로 겪어보게 하려는 것이다.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을 깨닫게 한 후 그 결과 인식이 변하게 되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과정이 힘들수록 결과에 대한 감동은 그만큼 커진다. 고통은 힘들다. 하지만 깨달음은 그 고행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고통과 직면하는 고행이 없는 깨달음은

없다. 염세주의 철학은 인식의 단계에 다가서기 위한 전제로서 고통에 직면하게 한다. 고통에 대한 인식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다.

인생을 아름답게 보는 비결

삶에 얽매이는 것은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삶을 너무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상적인 삶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상의 형식 속에 가두고 스스로를 묶어 버리는 꼴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시간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아야 한다. 공간의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은 지극히 “미세한 것”이다. 인생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이것을 인식해내야 그 다음 과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자만이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개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본래의 모습보다 확대되어 보인다. 쓸데없이 큰 의미를 두게 되는 실수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인생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이와 같다.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고통에 얽매여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점”에

불과한 인생을 믿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때 결과는 언제나 허무하기만 할 것이다. 인생의 좌절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결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처방이 과연 있을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렌즈로 확대해 보지 말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비유가 있다. 비유가 다르니 해결방법 또한 다르다. 이번엔 모자이크에 대한 설명이다.

조금 전엔 하나의 점에 불과한 인생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번엔 인생이 모자이크 그림과 같으니 멀리 떨어져서 보라고 한다. 사물이 눈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인생의 모든 개별적인 광경들은 모자이크의 조각들과 같다. 조각 하나하나는 전혀 아름답지가 않다. 투박하게 잘려나간 조각들에서 실망과 좌절만을 느낄 뿐이다.

모자이크 그림을 너무 가까이서 보면 그 그림이 보여주하고자 하는 바를 인식하지 못한다.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인생에 얽매이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인생을 달관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인생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시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때가 되어야 인생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인생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멀리 두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하나의 점이라면 그것을 확대하여 과대평가하지 말 것을, 그리고 인생이 모자이크 그림이라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것을 가르친다. 두 개의 비유는 서로 다른 내용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 인생을 아름답게 바라보기 위한 처방이다. 인생은 하나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현상 속의 인생은 다양하다. 하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매순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다양한 처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쳐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들린다. 하지만 동시에 애정이 담긴 당부로 들리기도 한다. 인생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소리 같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오직 순간적인 현재에 속해 있다.” 현재는 순간일 뿐이다. 현재는 생각하는 중에 이미 과거가 되고 만다. 현재는 그토록 빠르게 과거가 된다.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시간에 얽매인 삶은 과거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된다. 우리는 영원히 과거 속으로 흘러가 버린 순간을 안타까워하면서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한다. “저녁이 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씩 짧아져 간다.” 삶은 하루씩 죽음으로 넘어간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은 짧아져만 간다. 마치 레코드판이 끝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작은 원을 그리면서 더 빨리 도는 것처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일러주었다. 그것은 전제로 내놓은 조건문에 담겨 있다. “만일 우리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고갈되지 않는 영원의 샘을 갖고 있으며 그 샘으로부터 영원히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각을 퍼 올릴 수 있다는 은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이라는 조건문에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지 않을 열쇠가 숨겨져 있다.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숨겨 놓은 것이다.

“존재의 깊은 곳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영원의 샘”은 앞서 말한 발 밑을 흘러 지나가는 “살아 있는 샘”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을 할 때는 남의 말만을 신경쓰는 짓거리를 하다가는 자신의 발 아래로 흘러가는 살아 있는 샘, 생명의 샘물을 놓쳐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고갈되지 않는 그 영원한 샘을 놓친다면 미쳐버리고 말 것이라고 단계를 높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의 샘은 현상의 인생 밑으로 흘러가는 샘물이다. 티끌 같은 인생의 이면에 존재하는 진실한 인생이다. “초로와 같은 생애”에서 좌절하지 않고 영원에 속하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영원의 샘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만히 멈춰 서서 발아래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것이다. 현상의 시간을 멈추면 영원이 다가온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세계와 인류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쇼펜하우어의 행복은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에 달려 있다. 현상에서 벗어나면 영원의 샘물을 만나게 된다. 그 영원의 샘물로부터는 “영원히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간”이 흘러나온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인생과 시간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인생과 시간을 찾게 된다.

새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영원의 샘에 대한 “은밀한 의식”이 고행을 견뎌내게 한다. 힘든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딛게 한다. 불교

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일컫는다.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뜻이다. 견디는 마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산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다.

‘난 천재가 아니야!’라는 말로 상황을 피해가려 하지 말자. 천재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개인적인 고뇌에서 보편적인 고뇌로 넘어갈 때까지 고뇌와 직면해보는 것이다.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고뇌도 허무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인생의 깊은 곳에는 영원의 샘이 있듯이 고뇌의 이면에는 영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숨겨져 있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기회가 스며 있다. 고뇌를 피하면 영원 또한 피해갈 것이다. 고뇌를 모르면 영원의 샘물이 주는 인생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은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해준다. 고뇌는 모든 인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통은 피할 것이 아니라 맞서야 할 것이다. 고통이든 고뇌든 산스크리트어로는 “дук카 ” 라고 한다. 그 고통을 가르치려고 했던 자가 싯다르타였다. 고행 끝에 득도한 그가 중생구제에 힘을 쏟을 때 오로지 고통만을 설파했던 것이다.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싯다르타는 고통 그 자체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끝낼 수 있을지만을 중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다. 우리가 인생을 이성이 사용하는 개념들로 화

려하게 꾸며 스스로 환상에 빠지게 했다면 그것을 깨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개념은 “이미 표상을 전제” 할 수밖에 없다. 이성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성은 받아들인 다음에만 줄 수 있을 뿐이다.” 이성은 무엇인가를 직접 생산해내지는 못한다. 현실성이 부여되지 않은 이성은 망상이나 환상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논리에만 얽매이면 허무맹랑한 궤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성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라고, 그리고 잘 알고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인생이 무엇일까? 쇼펜하우어는 인생 자체를 “환상으로부터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산다는 것은 환상에서 깨어나는 과정이다. 진정한 삶은 꿈에서 깨어날 때 실현된다. 현실성 없는 허무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생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우연으로 시작되지만 시작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필연적이다. 모든 것은 “당연히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 그 당연한 것이 바로 보편적인 영역의 것이다. 보편성을 깨닫는 것이 환상을 깨는 것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배워보자. 그 배움의 목적은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인식이다. 이를 인식하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적 세계관을 선택한 것이다. 염세주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름다운 인생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무엇일까?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아프지 않은 인생, 슬프지 않은 인생은 없다. 행복은 잠깐뿐 불행이 인생의 긴 시간을 채운다. 그래서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므로 세계를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악마라고 하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출발점부터 인정하지 않는다. 고통의 원인을 인간에게 전가해 양심의 가책을 한없이 느끼게 하는 그런 기독교적 해석에 저항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은 신이 아니라 악마가 만들었다고 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의 창세 논리를 엮어버린다. 그러면서 세상에 등을 돌리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 신에게 매달릴 것을 종용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악마가 만들었으니 그 세상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우월한 초월적 의식은 분명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보다 우월한 초월적 의식은 시간과 공간으로 채워진 현상의 원리를 벗어난 의식이다. 그 의식이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다. “이 세계에 등을 돌리고 이 세계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데에서” 그 구원의 의식이 나타난다. 세상에 등을 돌린 자에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인생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인생에 대한 표상이 문제이다. 삶 자체는 문제가 없다. 삶에 대한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문제인 것이다.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시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간이 현상의 원리로 작동하며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시간은 사물일 뿐이며 멈출 수 있다. 끊임없이 흘러가던 시간은 사물 세계에서 느려지거나 멈춘다. 무한한 무가 인식되는 순간 모든 것은 하나로 합일한다. 물아일체가 그렇듯이. 시간 앞에 안달할 필요 없다. 안달복달하는 순간 시간은 주인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시간의 감옥 속에 갇힌 채 숨이 막혀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시간 앞에 당당해야 하는 것이다. 인생 앞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인생에 당당하라! 쇼펜하우어는 당당하게 살 것을 요구했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 그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았다. 세상사에 휘말리지 않고 초연한 자세로 살고자 노력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구원의 열쇠를 신에게 두는 순간 신의 변덕에 눈치만 보며 그것에 적응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 시간을 자신의 발아래 둘 수 있는 자는 결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살지 않는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그 당당함에 반했다.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비결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염세주의 철학이다. 모든 것은 변화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한 순간이라도 이 인생에 대한 무한한 가치를 발견한다면 영원의 샘이 흐르는 지상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 자기 삶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자였다. 한마디로 그는 당당했다. 염세주의 철학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자세이다.

이러한 당당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지옥훈련을 해야 한다. 세상이 지옥이라면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혀야 한다. 하지만 이 지옥에서도 살 수가 있다. 생각만 달리하면 이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다. 생각만 달리하면 말이다.

염세주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계는 지옥이다”라고 할 수 있다. 삶 자체는 생지옥이다. 쓸데없는 노력으로 시간을 채울 때 그곳이 지옥이다. 앞에서는 “물을 담을 수 없는 채로 물을 길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

옥은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나타나는 괴물과 같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이다.

인간은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망령인 동시에 그 지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악마이기도 하다. 자신을 시간이라는 쇠사슬에 묶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그렇다면 그 쇠사슬을 푸는 것도 자기 자신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쾌하지 못하며 아무 위안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들은 “하느님이 모든 것을 매우 훌륭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을 듣고 만족해하며 편하게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버리도록 강요한다. 종교적 도피가 평정심을 갖게 해준다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된다. 아무도 막지 않는다. 그것이 삶과 정신을 온전하게 해준다면 그것 역시 최선인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신에게 자신을 맡긴다 해도 현실은 현실이다. 자기 삶은 스스로가 살아내야 한다. 이 삶 이후의 삶,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 곁에서의 영생, 이런 것들은 상상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말이 만들어낸 최고의 순간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환상을 깨려고 노력한다. 그는 생을 그 자체로 보는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우리 철학자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외친다. 진정한 철학자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학설을 재단”하지 않는다. 그러니 “학설을 재단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말을 바꾼다고 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오는 날을 나쁜 날이라 하고 해가 뜨는 날을 좋은 날이라고 말한다 해서 그 날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변하는 것은 마음뿐이다.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철학자라면 쇼펜하우어는 그들을 “천박한 자들”이며 “사이비 철학자들”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의사는 먹기 싫은 쓴약도 처방할 줄 알아야 한다. 염세주의 철학은 듣기 좋은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 진실이 슬프다면 슬픔을 그 자체로 보여주고자 한다. 인생을 논하는 자리에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탄생과 죽음을 경험한다. 성공도 실패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다. 인생은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한다. 인생을 어떤 시간으로 채우느냐가 관건이다. 시계를 가지고 장난치던 어린아이를 다시 한 번 떠올려보자. 초침을 따라가던 아이가 잠시 딴 생각을 한 순간 수많은 시간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흘러가고 말았다. 시간에 쫓기면 한없이 쫓긴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시간을 앞지를 수는 없다. 그러다 정신 차리고 나면 남은 인생이 별로 없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를 재촉하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시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숨 쉴 겨를도 주지 않고” 우리를 몰아붙인다. 시간을 쫓아가면 시간을 따라잡을 수 없고 또 시간에 쫓기면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멈추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행복을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이 힘들면 시간

앞에 가면 된다. 여유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여유를 주는 것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다. 마음에 여유를 선사하라! 이 말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마음에 여유를 가지려면 고뇌를 알아야 한다. 고뇌를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쇼펜하우어는 괴테의 비슷한 말 두 가지를 인용했다.

고통이 현재의 자신을 고양시켜준다는 말이다. 충족되지 못한 생각은 고통일 뿐이다. 뭔가 모자란다는 의식 자체가 고뇌가 된다. 부족하니 슬픈 것이다. “참혹한 고뇌”는 처절한 현실 인식을 끌고 오지만 그 인식만이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다. 그러니 그 아픔에 고마움을 느껴보자. 고통이 오면 당당하게 받아보자. 상처가 주는 고통이 목구멍을 차고 올라와도 꼭 참고 견뎌보자. 가시를 품은 물고기처럼 부드럽게 당당하게 유명해보자.



*Parerga und
Paratipomena*

죽 음 에
대 하 여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삶의 끝은 죽음으로 찾아온다. 탄생한 모든 인생은 죽음을 필연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죽음을 멀리하고 살아간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오로지 ‘삶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눈만 뜨면 ‘아이고 죽겠다’고 외쳐댄다.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무기력함이 엄습하는 것이다. 이런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다. 삶이 위기에 처한 순간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막 자살을 하려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끔 하는 생각이다. 선생이란 직업으로 산 지 15년이 훌쩍 넘어간다. 짧은 시간이 아니다. 만약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말로 선생의 노릇을 다 할 수 있을까?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이로울까? 아니면 더 자극하게 될까? 조심스럽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애원하는 손짓만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할까?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자살에 대한 문제이다. 자살은 삶과 죽음 둘 다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에서 자살률이 최고라고 한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일컬어 ‘자살 공화국’이라고 한다. 다른 누군가는 이를 두고 ‘우리도 잘 살게 된 증거’라고 냉정하지만 당당하게 말한다. 하지만 그의 말에 선뜻 동조의 말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살은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살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선택의 문제이다.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다. 안락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의식이 없는 자의 의식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안락사이다. 안락사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자살과는 다르다. 그러니 여기서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죽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삶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을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철학은 위기에 처한 이런 인생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말 한 마디를 던져야 하지 않을까. 길을 잃은 방황자에게 손을 내미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바로 그 순간 어떤 답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든 살으라고! 하지만 너무 직설적이라 설득력이 없다. 좀 더 매력적인 말을 찾아야 한다.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말을 건네야 한다.

염세주의에 대한 오해와 추종자들의 이해

염세주의는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판단한다. 그렇다면 어차피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무엇할까.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했다. 고통스런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삶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고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하려고 염세주의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의 철학은 생을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바그너가 인정했고 니체가 모범으로 삼았다.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들이 찾아낸 쇼펜하우어 철학의 매력을 추적해보는 것이다. 그들은 왜 쇼펜하우어를 좋아했을까? 왜 그들은 그의 책을 읽었을까? 그의 책에서 그들은 무엇을 발견해냈던 것일까?

바그너가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접했을 때는 취리히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니벨룽겐의 반지〉 작업에 몰두할 때였다. 그에게 이 책을 전한 이는 그와 마찬가지로 취리히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게오르그 헤르베르였다. 마흔한 살의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들에 대한 갈피를 잡게 된다.

음악가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총 네 번이나 읽었다고 고백했다. 열정적으로 독서할 수 있었던 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에 대한 염세적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과 인생의 본질은 의지라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동참했던 바그너는 그 이념을 자신의 음악극으로 승화시켰다. 존재의 딜레마는 오로지 예술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도 감동을 받았다. 시민사회의 위기 상황에서 예술의 역할을 인식한 것이다. 바그너에게 쇼펜하우어의 책은 시대가 남긴 상처를 낫게 해주는 약과도 같았다. 1854년 12월 친구 리스트에게 보낸 편지글 속에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에 대한 인상을 적어놓았다.

생의지의 거부, 삶에 대한 의지의 거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그너는 깨달았다. 그것이 곧 구원임을 인식한 것이다. 바그너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확실해진 것이

다. 모든 헛된 꿈들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곧 무 와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구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죽음에 대한 내적인 동경이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죽음은 생의지의 거부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하게 거부할 때 실현되는 죽음에 대한 경험인 것이다. 죽음은 헛된 꿈과 허무한 희망으로 매달리던 삶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 해준다.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명언이 이런 경우를 대변할 것이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구원사상은 바그너의 음악극에 틀을 제공해주었다. 이후 바그너는 작품 속에서 이 구원사상을 구현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된다.

그렇다면 니체는 어떠했는가? 본 대학의 학생이었던 청년 니체는 어느 고서점에서 처음으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접하게 된다. 이 책을 손에 들었을 때 그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면서 니체는 위기를 경험했다. 책을 읽으면서 죽다 살아났다고 해야 할 정도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이 가져다주는 위기의 순간은 니체를 지옥의 문턱까지 인도했다. 책을 끝까지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독서 도중에 자살을 했을지도 모른다.

염세주의 철학은 이토록 위험하다. 충분히 건강하지 않은 자에게 염세주의 철학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생의 무가치함을 가르쳐주는 그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기 목숨에 어떤 해코지를 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견뎌냈다. 염세주의가 가져다준 독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다. 염세주의라는 맹독을 견뎌냄으로써 더욱 건강해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병원에 가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말이 있듯이 병에서 회복되면서 니체는 삶에 대한 가치를 더욱 절실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그는 염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했다. 니체는 나약하고 소극적인 염세주의를 버리고 허무주의 라 불리는 강한 염세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쇼펜하우어 철학을 염세주의라고 한다면 니체의 철학은 허무주의이다. 둘은 서로 닮아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삶과 세상을 헛된 것으로 보

는 것까지는 비슷하다. 하지만 염세주의는 자기 자신까지 무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을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허무주의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지속적으로 극복해내야 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허무주의에서 나는 나로 남는다. 생의지는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더 발전시켜 나간 것 같다. 니체는 언제나 쇼펜하우어의 생각 속에서 삶의 가치를 추구했다. 니체가 던지는 모든 질문들은 염세주의에 뿌리 두고 있으며 거기서 자신의 철학을 일궈내고 있다.

강함의 염세주의가 바로 니체가 추구한 철학이다.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되 강한 눈초리로 세상을 직시하는 것이다. 니체는 “행복과 넘쳐나는 건강함 그리고 삶의 풍요”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철학을 원했던 것이다. 염세주의가 약자가 느끼는 고통을 운운한다면 허무주의는 강자가 느끼는 고통을 운운한다. 염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 고통을 멈추는 비결을 원했다면 허무주의는 “자신의 힘을 견주어볼 수 있는 상대인 적, 즉 가치 있는 적”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원한다.

삶에는 경쟁자가 필요하다. 경쟁할 수 있는 자는 “가치 있는 적”이다.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죽음 가까이 데려 갈 수 있는 적은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적이다. 그런 자를 만나야 자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치를 얻게 된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만용일 뿐이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서 도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기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덤빈다면 그것은 만용이다.

그래서 허무주의는 자기 자신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니체는 자기를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용기, 자기 자신을 전쟁터로 내모는 그런 용기를 원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영웅이 될 수 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수조건이다. 니체의 생철학은 더 직선적이고 더 맹렬하게 싸우라고 압박지른다.

쇼펜하우어의 책을 독파했던 니체는 처녀작으로 《비극의 탄생》을 세상에 내놓았다. 비극문화가 융성했던 그리스 시대를 공부한 것이다. 니체는 그리스 시대가 오늘날까지 강력하게 살아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비극에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무시무시한 현상”이 있다. 쇼펜하우어 식으로 말하면 고통을 직면하게 하는 예술이다. 염세주의를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로서 니체는 비극을 선택했던 것이다.

단순한 삶을 넘어서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종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든 살라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생철학과 실존주의의 선구자가 된다. 자살은 안 된다. 자살을 하면 깨달아야 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깨달음을 지향하는 철학인데 자살은 오히려 그런 목적을 방해한다. “자살에 반대하여”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의 생각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자살에 반대하여”,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근본 입장이다. “인간은 모름지기 자신을 단순한 삶 이상의 것으로 고양시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삶이란 먹고 싸고 자는 일상적인 삶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은 이러한 동물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단순한 삶에서 삶을 고양시켰다면 그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간단해진다. 어떤 외적 변화에도 내적 자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외부의 변화가 아무리 커도 내면은 고요한 바다와 같을 것이다. 단순한 삶이란 “못된 장난”이며 동시에 “장난기 섞인 심한 다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된 정신에게는 일상 속의 단순한 삶에서 그 어떠한 “진지한 투쟁”도 찾지 못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순한 삶을 그 이상의 것으로 고양시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인생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바로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단순한 것 이상으로 고양시키지 못하면 그 어떤 풍족이 주어져도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무의미하게 사라지고 만다.

무의미한 삶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에서 만족하지 말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일상에 연연하고 매달리다 보면 모든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다 써버릴 수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사사건건 몰두하다보면 자신을 돌볼 시간을 잃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찰이 없는 삶은 그런 것이다.

단순한 삶 이상의 것으로 자신을 고양시키지 못한 자는 나쁜 시기가 오면 쉽게 포기하고 만다. 일상의 사건을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에 일상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삶의 모든 변화에 흔들리는 인생! 그것은 사람을 너무도 피곤하게 만든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게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쁜 패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여유는 찾지 못하고 일상의 변화에 온 신경을 쏟은 결과이다. 인생에서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예상을 벗어나는 변화도 일어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패에 얽매어 살 때 인생은 위기를 맞는다.

두 개의 고통과 추구하기를 중지하기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은 언제나 인생의 또 다른 말이 될 뿐이다. 고통 없는 삶이란 모순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통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 한쪽은 추구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통이고 또 다른 한쪽은 추구함을 버림으로써 받게 되는 고통이다. 이것은 마치 사랑할 때의 고통과 헤어질 때의 고통처럼 고통의 원인이 서로 다른 것과 같다. 만남은 지속을 추구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지속 자체가 고통스럽기도 하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만남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만남은 이별을 운명으로 한다. 이별하는 순간 만남을 지속시키고자 할 때의 고통이 절정에 달한다.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절망의 강도도 강하다. 추구함이 강할수록 절망의 높은 깊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추구하기를 그만두면 어떨까.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가르치고자 하는 삶의 지혜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추구하기를 중단하지 못해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된 것이다. 욕망을 멈추지 못하면 인생은 위기에 봉착한다. “자살하는 사람은 의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의 현상을 폐기하는 사람이다.” 생의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생의지를 긍정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생을 유지하는 현상 자체

를 폐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다. 그것이 자살이다. “즉 자살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끊는 것일 뿐이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밝히는 고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생명을 버리는 고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살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고통”이다. 전자는 사람을 자살로 이끌고 후자는 해탈로 이끈다. 전자는 자기 삶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후자는 의지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한다.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자의 행동은 자신의 삶 자체를 견디지 못해 생겨나는 것이다. 자살자는 내적 분열을 경험한다. 의지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그 방향에 방해받을 때 내적 분열은 피할 수 없다.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면 절망은 자기 자신을 삶의 가장자리로 몰아붙인다.

자살자와 성자의 비교

삶은 두 개의 고통으로 이루어진다. 삶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삶의 끝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쪽은 자살자고 다른 한쪽은 성자다. 둘의 삶을 비교해보면 고통에 대한 인식도 분명해진다. 한쪽의 고통은 현상적 고통이고 다른 한쪽의 고통은 본질적인 고통이다. 전자는 일상적인 고통이고 후자는 일반적인 고통이다. 전자는 개별적인 고통이고 후자는 보편적인 고통이다.

자살자와 성자는 삶의 양 극단에 있는 사람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극히 다르다. 한쪽은 생명을 잃고 또 다른 한쪽은 생명을 구한다. 자살자는 사물의 현상만을 주시하지만 성자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를 바라본다. 자살자는 현상의 원리인 시간과 공간, 근거울에 얽매 여서 사고를 하지만 성자는 이데아 혹은 물자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혼란한 현상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성자는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스스로 의지의 방향을 전환시킨다. 의지의 방향 전환이 관건이다. 의지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정진의 반복이 필요하다. 성자의 삶은 고행의 삶이다. 고행을 업으로 삼고 금욕을 몸에 익히고 사는 것이다. 금욕고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에 대한 의지는 인생 자체를 고달프게 할 뿐이다.

“자살자는 생활 전체를 의욕하면서도 살고자 하는 의지의 현상인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여 자기 자신만을 파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살자의 삶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한 문장이다. 의욕하면서 의욕에 좌절하는 모습이다. 의지의 현상 앞에 절망하는 불행한 삶이다. 그래서 의욕하

는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고자 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없다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의욕이 없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살자의 최후 결심도 현상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시간과 공간, 인과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결심도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결성된다.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삶 자체에 희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나르시스가 새로운 삶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하지만 그 죽음 자체는 새로운 삶을 얻게 하기는커녕 실존의 가능성을 잃게 하고 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르시스는 자기 결심의 희생자일 뿐이다. 의지가 도리어 자신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친다. 자살은 무의미한 행동에 불과하다. 자살은 자기 의지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다. 염세주의 철학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염세주의는 인식, 즉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데 깨달음은 깨닫는 주체인 자기 자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자신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절망과 해탈

절망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정신의 병”인 동시에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규정하고 삶에 해코지를 하는 “죄”로 간주했다. 절망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병이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절망이 존재한다. 절망은 “보편성”을 띄고 인간 곁에 버티고 서 있다. 하지만 “절망은 죄이다”라는 명제는 피해갈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키르케고르처럼 절망을 확실하게 체계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부정적으로 논한다.

이 문장에서 인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한다. 이 인식들은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도달하고자 하는 긍정적 의미의 인식이 아니다. 첫 번째는 의욕하는 것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의욕이 헛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목적의식과 같은 것이다. 정신이 하나의 목적에 쫓히면 더 이상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다. 경직된 사고는 다양한 현실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유연하지 못한 생각은 삶의 형태를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삶을 부러뜨린다.

두 번째의 인식, 즉 의욕이 헛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이 의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고집하고 집착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 인식은 첫 번째 인식인 목적의식과 맞물리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게 만든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이다.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출구를 찾으려는 무의미한 노력의 반복은 영혼을 지치게 만든다.

이런 의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자살하기까지는 참혹한 절망과 온갖 사사로운 혼란으로 줄곧 고통을 당하게 된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의 인식이 반복적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짐으로써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이다. 현대인의 지치고 힘든 영혼은 이런 일상적 인식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다.

거듭되는 절망과 혼란은 고통으로 인식된다. 고통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곳에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 한 가닥의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가련한 영혼은 자신의 육체에 가혹한 결말을 선사한다.

자살을 원하는 자는 괴로운 삶을 끝내길 원한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죽음을 원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자살은 곧 “살고자 하는 의지의 극단적인 표현”일 뿐이다. 자살을 통해 멸망하는 것은 삶 자체가 아니다. 자살을 통해 없어지는 것은 오로지 삶의 “현재적 현상뿐”이다. 삶의 현재적 현상만이 사라질 뿐이다.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자살은 “오직 개체에 한정”된 사건이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한 개인의 죽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의지는 “수많은 개체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개인의 삶에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기 위해 보편적인 인식을 권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생의지에 대한 거부 의사인 것이다.

생의지의 완전한 거부, 살고자 하는 의지의 포기, 삶에 대한 모든 의지의 완전한 체념이 쇼펜하우어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단계이다.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그 경지가 바로 해탈의 경지이다. 니르바나 , 베다니경에서는 님바나 라고도 한다. 니르바나는 니르 라는 접두어와 바 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니르는 밖으로 라는 뜻을, 바는 불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세상 밖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경험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저버리고 전부라고 간주했던 것을 무 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헛되다는 인식이다. 이 인식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욕이 헛되다는 절망적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불다라는 말은 불꽃으로 비유되는 욕망과 관련해서 해석될 수 있다. 내면을 채우고 있던 욕망의 불꽃을 바람을 일으켜 꺼버리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부나방처럼 불꽃을 향해 돌진하는 미련한 짓을 버리고 오히려 그 불꽃을 꺼버리는 용기를 말한다. 망상에 사로잡혀 그 올라미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미련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해탈이 차지하는 바는 지극히 크다. 인식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측심연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이다. 번뇌 혹은 속박에서 벗어나 속세의 근심이 없는 편안한 심경이 해탈이다.

이러한 해탈의 경지는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 현상은 다양하다. 수도 없이 많다. 어느 현상의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현상의 본질인 의지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마치 빗방울 하나로 무지개를 없앨

수 없고 사물 하나로 물자체를 없앨 수는 없듯이 말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은 언제나 상반된 관계를 형성한다. 개별적인 것은 현상의 원리에 의해 한계에 부딪혀 좌절을 하게 되지만 보편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 인과율로부터 벗어나 있기에 영원성을 부여받게 된다. 개별적인 것으로는 절망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없지만 보편적인 것으로는 깨달음을 얻고 해탈이 가능하다. 개별적인 것으로는 언제나 “올바르지 못한 길”로 들어서게 하지만 보편적인 것으로는 늘 “올바른 길” 위에 머물게 해준다. 현상의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 길은 먼 곳에 이르게 한다.

불안을 품고 끝까지 가보라!

무엇을 하든지 미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끝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생도 확실히 하면 인식이 동반되는 것처럼 모든 것의 끝에는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다. 불안이 극에 달할 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난다. 끝에 도달하면 모든 것은 방향이 바뀐다.

몹시 무서운 꿈은 분명 이 세계를 말한다. 쇼펜하우어는 여러 곳에서 일상으로 채워진 세상을 꿈으로 비유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있다는 꿈을 꾸고 있으며 이 꿈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졸면서 꿈을 꾸면서 노를 젓는 고역선의 죄수” 이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시작하는 제1권의 모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유년기에서 벗어나, 벗이여, 깨어나라!” 그리고 제1장의 첫 번째 문장을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로 시작한다. 내가 세계에 대해서 표상하는 그것이 어찌면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또 현상을 설명할 때 쇼펜하우어는 자주 “마야의 베일”을 언급한다. “그것은 인간의 눈을 가리고 세계를 보게 하는 기만의 베일인 마야이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덧붙여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인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꿈을 만드는 재료와 같고,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삶은 잠에 싸여 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꿈과 같다는 것이다. 실재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 꿈에서 깨어나는 비결을 알려주는 철학이 바로 염세주의 철학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일컬어 몹시 무서운 꿈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꿈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꿈속에서 우리를 무서움에 떨게 하는 것은 불안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불안이 극에 달하는 순간, 바로 그 불안이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쇼펜하우어는 언제나 자신이 부정하는 그것을 열쇠로 선택한다. 이것이 염세주의 철학의 묘미이다. 의지를 포기하라 하면서도 결국에는 의지로 되돌아가고 또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끝맺음은 인식에서 이루어진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그 고통이 없이는 해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언제나 문제 자체를 해답을 위한 결정적 증거로 삼는다.

악몽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다. 삶이 악몽이다. 꿈을 악몽으로 만드는 것은 불안이다. 그런데 그 불안이 우리를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 바로 여기에 반전이 숨겨져 있다. 불안이 극에 달하면 우리는 결국 방향을 바꿔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눈을 뜨면 우리는 밤의 그 끔찍스러운 공포는 사라진다.” 깨어남의 현상이다. 무서움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모든 것은 눈을 뜨는 순간 달라진다. 실재하는 현실 속으로 돌아온 의식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한다.

불안은 우리를 구원해줄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와 같은 것이다.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살고 있는 미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빠져나오게 해주는 그런 구원의 실인 것이다. 실 자체는 두 손으로 쉽게 끊어질만큼 약하다. 하지만 그 약한 실이 길을 알려준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의지로 쉽게 불식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 불안이 우리를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불안이 구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극에 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은 그저 우리를 위축시킬 뿐

이다. 하지만 극에 달하면 불안은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는 위대한 일을 해낸다.

다시 자살의 문제로 되돌아가보자. 자살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올 때 생겨난다. 하지만 자살은 현상만 파괴할 뿐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꿈에서 깨어나려면 의식이 존재해야 한다.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려면 꿈을 꾸고 있던 의식에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자살은 “어리석은 실험”이다. 자살은 모순적인 질문이다. “대답을 들어야 할 의식 그 자체까지도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다. 자살은 인식을 방해하는 실수이자 깨달음의 경지까지 갖고 가야 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실수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지혜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동물을 바라볼 때 부러운 점은 무엇일까? 동물에겐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인간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말을 경멸한다. 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에게 던지는 저주와도 같은 말이다. 하지만 동물에겐 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전혀 저주스럽지 않다. 그 말은 동물에게 당연할 뿐이다. 우리는 미래가 없는 존재인 동물을 부러워 하기도 한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동물보다 인간이 더 낫다고 장담한다. 인간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에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

이 문장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존재들이 비교되고 있다. 첫 번째로 동물적 존재는 설익은 과일이다. 동물은 자연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이다. 동물적인 것에는 언제나 자연적인 것이 따라다닌다. 여기에 동물적 존재의 한계가 있다. 동물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전부다. 그 이상의 것을 바랄 수 없다.

두 번째로 자유를 얻은 인간 존재이다. 자유를 얻은 인간은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다. 동물이 구속되어 있는 자연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인간은 그래서 동물보다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모든 것에서 이탈할 수 있다. 덕으로부터도, 고행으로부터도 현세의 모든 것으로부터도 이탈이 가능하다. 인간의 능력은 자유를 얻을 때 거의 무한의 경지에 달한다. 자유를 얻은 인간은 “완전히 무르익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진 과일”로 비유된다. 인간이 과실이라면 누구나 완전히 익어서 자연스럽게 대지에 떨어지기 원한다. 주어진 인생을 모두 누리고

생을 마감하고 싶어한다. 천수 를 누리고, 천명 을 깨닫고 죽는 것보다 위대한 삶이 있을까.

천수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다. 천명을 깨닫는 것은 범인의 일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세 번째 존재로서 평범한 인간의 존재를 거론한다. 메피스토펠레스의 대사를 인용한 “거의 모든 인간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썩어 버리는 산사나무 열매와 같다”는 말은 왠지 교훈적으로 들린다. 아니 경고로 들린다. 악마의 사자가 하는 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인간을 업신여기면서 하는 소리 같기도 하다. ‘인간이란 녀석들은 열매이면서도 채 익지 못하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썩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처럼 들린다. 나무에 매달린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열매의 운명으로 보면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열매의 진정한 완성은 나뭇가지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이다.

악마의 사자가 한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인들은 나무에 붙어 안달복달하며 살고 있다.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인간의 삶으로 바꿔 설명하면 시간과 도덕, 이성에 얽매여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바뀌는 유행을 따라가느라 온 열정을 다 허비한다. 평생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썩어가는 가련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인생론》에서 하는 말의 핵심이다. 삶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주어진 기회이다. 삶을 잘 이용해야 한다. 잘 산다는 것은 바다의 바닥을 재는 측심연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도달했는가 하는 질문과 연결

된다.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깊이에 도달해놓고선 그것이 바다의 깊이라고 우겨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로적인 것

이 인용문을 한 마디로 줄이라고 한다면 “두뇌와 생식기는 상반된 양극을 이룬다”라는 문장을 꼽을 수 있다. 두뇌는 정신적 생활을 담당하고 생식기는 육체적 생활을 담당한다. 둘은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다. 인간의 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요소이기도 하다.

“푸른 하늘은 먹구름이 폭풍을 일으키고 사라진 직후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비가 내린 후 공기 속에 있던 먼지들이 가라앉고 나면 시야가 쾌청하게 드러난다. 먼 산도 선명하게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생식기를 음락의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의지의 방향 전환이다. “일

단 의지의 방향을 전환하면 정욕의 고통이나 광란적인 격정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대신 최고의 정신력이 의식의 전면으로 나타나 새로운 활동이 시작된다.” 쇼펜하우어는 정욕으로 일관되는 격정을 암흑의 세계로 설명한다. 그리고 최고의 정신력이 의식을 담당하는 순간을 광명의 세계로 대립시킨다.

정욕과 정신의 이런 대립구조는 니체의 사상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비극의 탄생》에서는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디오니소스가 정욕과 격정의 영역이라면 아폴론은 이성과 광명의 영역이다. 서로 다른 이 둘이 예술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이루게 하는 기둥이다.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차이점은 두 가지 중 무엇을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쇼펜하우어는 격정을 암흑의 세계라고 했고 정신의 활동을 광명의 세계로 평가했다. 정신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그의 철학을 탄생시킨다. 한 쪽이 순수한 인식을 통해 해탈하려는 반면 다른 한 쪽은 의지를 사용하여 힘 혹은 권력을 거머쥐고 이를 통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며 결국에는 초인이 되고자 한다.

다시 쇼펜하우어에 집중해보자. “두뇌와 생식기는 상반된 양극을 이룬다.” 쇼펜하우어는 이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는다. 이 말은 타당하다는 평가와 함께 자기 생각을 구축해간다. 덧붙여 “사람은 음락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은 사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라는 말을 인용한다. 쉽게 표현하면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이다. 음락에 빠지면 판단

능력이 사라진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 마디로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통제를 벗어난 혼란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정욕에 휩싸인 의식이 일단 방향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시 재정립된다. ‘사랑에 빠지면 모두가 시인’이라는 말이 이에 해당한다. 사랑보다 더 좋은 자극제는 없다. 사랑이 남기는 상처는 아프지만 그것이 일궈내는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음락에 대한 충동이 솟구칠 때는 양극의 어느 쪽으로든 활력이 최대로 집중되므로 가장 강력한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말한 것이다.

누군가는 자살을 하고 싶다면 일단 사랑을 해보라고 말한다. 사랑을 하면 사람은 강해지고 실연의 슬픔은 또 다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 건강한 삶의 관건은 두뇌와 생식기 간의 균형이다.

하지만 정욕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균형은 아무나 잡는 게 아니다. 균형을 잃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초반에 나타나는 줄타는 광대의 죽음은 바로 이런 교훈을 담고 있다. 실제생활에서는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도 이에 대해 경고한다.

정욕은 도깨비불같은 망상이라 아름답게 보이지만 치명적이다. 시선을 사로잡는 불빛에 눈이 멀면 삶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도깨비불은 우리를 높여 빠뜨려놓고선 유유히 떠나버린다. 죽음과 함께 깨달음은 오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두뇌와 생식기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양극은 상대의 극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며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삶의 위기는 언제나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난다. 인생은 줄타기와 같아서 주저앉을 수 없고 끊임없이 균형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포기하면 죽는다.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다.

생의지를 부정하는 순수의지

쇼펜하우어 철학은 깨달음의 철학이다. 인식을 목적으로 한다. 인식은 의지에 봉사한다. 하지만 순수한 인식은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인식이다. 쇼펜하우어는 마찬가지로 순수의지를 말한다.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의지가 바로 순수의지다. 의지가 순수해야 인식이 다가온다. 순수한 의지로 삶을 무장할 때 그 삶은 무적이 된다.

순수한 의지는 생존을 의욕하지 않는 의지를 말한다. 생의지를 거부한 의지이다. 삶에 대한 의지는 원할 것이 아니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삶에 대한 의지를 거부함으로써 삶을 새롭게 해주는 전혀 다른 의지를 획득하게 된다. 새롭게 획득된 순수의지는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정돈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 순수한 의지를 갖기 위해 거쳐야 할 길은 험난하다. “일단 의지의 방향을 전환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만 그때까지가 문제이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관용의 덕”을 예로 끌어들인다. 관용은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류에 대한 극도의 경멸”이라는 험난한 길을 거쳐야 한다. “인류에 대한 경멸감”을 가진 후에야 동정심이 발동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어야 의지는 방향을 바꾸어 관용의 덕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진정한 구원은 생의지의 부정과 연결된다. 자살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주는 것이 생의지의 부정이다.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이 생의지의 긍정이었다면, 바로 그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구원이다. 생의지의 부정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근본 사상이다. 인식의 변화가 의지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의지의 변화가 자신의 삶을 위기에서 구출한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정의이다. 그 다음 문장은 이 문장의 부연설명에 불

과하다. “이 말은 살아 있어 인식하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다.” 세계 자체가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인식이 었세주의 철학의 시작인 셈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지금의 세계 현상을 야기시키는 것”이 생의지의 긍정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한 결과 생겨난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세계 현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나의 본질인 생의지를 긍정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답답한 존재가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생의지의 부정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삶에 연연하는 그 의지를 부정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그 의지는 “이 현상을 야기시키지 않고 조용한 상태에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 의지가 조용해진다. 의지가 인식하는 존재의 본질이니까 본질 자체가 조용해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힌두교 경전 베다의 가르침으로는 대숙면위가 되는 것이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열반이 되는 것이며, 플라톤의 철학적인 개념을 빌리자면 피안이 되는 것이다.

엇세주의 철학이 제시하는 구원의 열쇠는 바로 생의지의 부정에 있다. 이 생의지의 부정은 물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목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생의지의 부정이 결코 물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리아드네의 실처럼, 생명줄처럼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생의지의 부정은 물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단지 의욕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다. “이제까지 의욕해 왔던 것들을 더 이상 의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

욕했던 것이 이 세계와 자기 자신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이전까지 원했던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계와 자기 자신을 만드는 원인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다. 그 마지막 단계는 의지와 행동의 관계 속에 스며 있다. 의지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만 인식된다. 의지는 행동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의지는 알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 생각은 쇼펜하우어 철학을 구축하는 기둥과도 같다. 이것이 흔들리거나 불안하면 사상 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만다.

그런데 생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원했던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는 행동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행위가 없으니 의지 자체가 인식될 수 없다. 결국 의지의 현상에 불과한 우리들의 존재는 살고자 하는 의지의 부정을 통해 “무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해탈의 경지이다.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존재가 무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는 상대적 무도 아니고 절대적 무도 아니다. 어떤 상태를 전제하는 무도 아니고 논리적인 무도 아니라는 얘기다. 생의지의 부정을 통해 도달하게 된 무는 “인식만 남아 있고 의지는 사라진 것”과 같은 상태이다.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인식에는 표상의 세계도 없다. “의지가 없으면 표상도 세계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도 휴식도 없는 끊임없는 소동과 야단법석이 없어지고” “우리 앞에 남는 것은 무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뿐이다.

쇼펜하우어가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무는 생의지의 부정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서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깨달음을 지향하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한계다. 말로 설명 안 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무는 “모든 이성보다 높은 평화, 대양처럼 완전히 고요한 마음, 깊은 평정, 흔들림 없는 확신과 명량함”으로 이성보다 높은 경지이다. 개념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성의 영역보다 높기에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은 삶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 어떤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지도 않고 신의 존재를 운운하지도 않는다. 그냥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어떻게 살아야 삶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불행을 극복할 수 있을까? 모두 삶에 대한 문제들이다. 생의지를 부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지만 생의지의 부정이 물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삶 자체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독립된 문장으로 인용한 문구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인용문은 호라티우스의 문장이다.

괴로울 땐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행복할 땐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다. 힘들 때 힘들다고 엄살 피우지 말고, 잘 나갈 때 까불지 말라는 얘기다. 가난할 땐 비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부유할 땐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밀물이 오면 밀물을 즐기고 썰물이 되면 그 상황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해가 뜨면 해를 즐기면 된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껴보고 낙엽이 떨어지면 그 추락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보면 되는 것이다. 즐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변화 속에 있으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폭포 속의 물방울은 추락 속에서도 정지의 순간을 가질 수 있다. 매순간이 인생의 일부이며 매순간에 이랬다저랬다 요동칠 필요 없다. 일부분 때문에 인생을 망칠 이유는 없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그런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준다.

현상에 얽매어 살면 감정이 요동을 친다. “소동과 야단법석” 으로 채워진 인생 속에서 굳건한 바위처럼 존재하기 위해 현상은 거부의 대상이 된다. 한 없는 기쁨과 한 없는 슬픔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의 문장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을 통제하기에 최적의 문장이다. 어쨌거나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니까 말이다.

또 하나의 문장을 외워보자. 이것도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형식으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용된 문장이다. 이것도 호라티우스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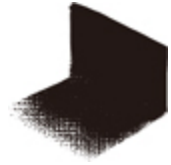
마음이 편한 삶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이 아닐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호라티우스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다. 욕망은 끝이 없다. 악마도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만족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을 주겠노라고 단언했던 것이 파우스트 박사였다. 하지만 메피스토펠레스는 그 욕망을 꺾을 수 없었다. 그만큼 끝을 모르는 게 인간의 욕망이다.

두 번째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일에 두려움도 희망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인생살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에 겁낼 필요가 없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괴물 같은 것은 현실에 없다. 세상 종말 같은 것은 이성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희망이 없다면 실망도 없다. 인생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일 뿐이다. 자기 의지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을 뿐이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현상일 뿐이다. 그 현상이 우리에게 표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런 현상과 표상 때문에 삶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Parerga und
Paratipomena*

지 성 에
대 하 여



염세주의 철학과 인생관

모든 철학은 나름대로의 진리를 품고 있다. 염세주의 철학도 그렇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많은 오해가 있었다. 염세주의 철학은 인생을 무시하고 폄하하며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염세주의 철학은 다만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을 뿐이다. 궁극적인 자기 긍정이라는 덕행을 위해 “금욕고행 ”의 길을 따랐을 뿐이다.

금욕고행이란 욕망을 금지하고 힘든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것이 해탈의 길이다. 하고 싶은 것을 마다하고 자신을 구속시키며 원리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훈련이며 수련이다. 모든 배움의 길은 힘들다. 사람에 따라 훈련의 강도는 각기 다르다. 누구는 큰 산에 도전하고 누구는 보다 작은 산에 도전한다. 누구는 이것에 도전하고 누구는 저것에 도전한다. 도전의 종류와 내용에 개인차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의 삶 속에서 인식에 도달할 기회를 갖고 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과거의 눈과는 다른 눈이어야 한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새롭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놓아도 그것을 다룰 줄 모르면 쓸모가 없다. 아무리 삶

이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고 타일러도 스스로 삶을 다룰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삶도 보는 법이 관건이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도 된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에 대해 포기를 선언하고 전혀 다른 생각의 틀을 가져보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성과 사색, 독서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다. 염세주의 철학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하는 철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지성과 내부 의식 세계

쇼펜하우어는 순수한 것을 참으로 좋아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책들 속에서 순수인식, 순수의지, 순수지성 등을 자주 거론한다. 마음이 순수하면 모든 것이 순수해 보인다는 말도 있다.

혹은 마야의 베일에 싸인 것처럼 세상을 화려하게만 바라보는 실수도 저지를 수 있다.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염세주의 철학은 가혹하리만치 직설적인 면모를 보인다.

염세주의 철학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바꿔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진정한 발전은 문제를 인식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세상이 순수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을 표상하는 지성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성이 문제다. 순수하지 않은 지성은 그것의 원인이 되는 의지에 구속되어 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의지를 거부한다. 의지로부터 분리되면 될수록 지성은 순수한 면모를 갖추나간다.

외부 물질세계와 빛, 내부 의식 세계와 지성은 같은 원리에 의한다. 빛이 외부 물질세계에 끼치는 영향이나 지성이 내부 의식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나 매한가지다. 빛이 타는 물질에 의해서 생기듯 지성은 의지가 객관화된 육체로부터 생긴다. 물질이 순수하면 할수록 그것이 탈 때 생기는 연기는 적다. 그만큼 빛 또한 순수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지성도 순수하게 보인다.

순수한 지성은 내부 의식 세계를 순수하게 인식하게 해준다. 순수한 지성은 순수한 인식으로 바뀌 말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인식은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를 향해 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며 소리와 침묵이다. 모든 감각은 외부 세계의 현상들을 인식하는데 맞춰져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식의 방향을 안으로 돌려놓고자 한다.

인식은 원래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 외부 세계의 현상을 인식하고 그 현상을 확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인간은 외부 세계의 현상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인간의 삶은 외적 요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인식은 이제 전혀 다른 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외부 세계로 향했던 인식을 이제 안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캄캄하다는 첫인상을 받게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누가 자신이 보인다고, 자신을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느끼는 감정은 캄캄한 공간 속에서처럼 눈은 뜨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하나 없는 그런 기분이다. 공허하고 허무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

지성이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순수해지듯이 인식 또한 육체적 감각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순수해진다. 육체는 의지의 현상일 뿐이라 했다. 결국 그 현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 지성과 인식은 순수해지는 것이다. 인식이 내면으로 향할 때 캄캄한 암흑을 보게 되는 것은 의지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의지의 명령을 받는 인식으로는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알아야 할까? 왜 굳이 내면의 의식 세계와 관련한 순수한 지성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가련한 인생이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그런 삶을 극복해보자는 의도에서 시작한다.

형이상학적 욕구와 철학의 과제

현대사회는 외적 요소에 큰 의미를 둔다. 실사구시 의 정신으로 일관하다보니 사실이 아니면 가치를 두지 않는다. 모든 청춘을 배움에 바쳐야 하고 배움을 통해 대학을 가야하며 대학을 통해 취직하는 것이 전부인 사회 속에서 삶은 피폐해진다.

취업을 하면 일상이 시작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아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저 삶을 유지할 뿐이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자기 위치와 의무를 이행하며 반복되는 일상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의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종교가 전하는 메시지에 만족한다. 신앙으로 현실을 버틴다. 더 이상의 불만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끊임없이 질문에 질문을 해내는 치열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답을 요구한다. 모든 의문과 의혹에 확실한 해답을 추구한다. 이들은 좌절을 수도 없이 느끼며 현실 속에서 방황하기 일쑤이다.

일반적인 인간의 지성은 너무도 “천박하고 편협”하다. 일반적인 인간의 의식에서는 “명료함”을 찾아볼 수 없다. 수평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깊이도 없다. 지식에 대한 절실함도 없다.

일반적인 현대인들은 “인간의 수명이 지극히 짧고 우리의 존재가 불안하며 사면팔방에서 수많은 억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간다. 수명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삶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태롭게 살아간다. 게다가 사방에서 수많은 억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을 인식하지 못한다. 태평스럽기만 하다.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인문학의 위기는 존재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삶의 위기로 돌아온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실 인식에서 철학한다.

인생은 짧다. 세네카의 말처럼 “인생은 올바르게 사용할 줄만 안다면 충분히 길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짧게 느껴진다. 일생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들이다. 그런 추억들은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기억 속에 저장된 것들이다. 의미 있는 삶은 “몽롱한 꿈속에서 자신의 삶을 흘려보내며 다만 그들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몇 년 앞을 예비할 수 있다는 능력”만을 가진 자들에겐 요원한 이상에 불과하다. 취생몽사 라는 말이 있다. 술에 취하여 자는 동안에 꾸는 꿈속에 살다가 죽어간다는 뜻이다. 아무 하는 일 없이 흐리멍덩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꿈속에서처럼 무기력하기만 하다. 그런 꿈을 꾸며 삶의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삶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형이상학적 존재로 이해한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욕구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간은 형이상학적 욕구 없이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그 욕구에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허무맹랑한 종교적 메시지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학교 공부만큼 내면을 다지는 공부도 필요하다. 건강한 인성을 위한 공부는 언제나 일반적인 사회의 요구와는 별개였다. 일반적인 교육은 사회의 이념만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시대의 소피스트 교육이 그랬고 중세의 교회 교육이 그랬던 것처럼. 르네상스 이후 오늘날까지 지배하고 있는 부에 대한 가치관은 성공지향주의를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염세주의 철학은 이런 현실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갖게 해준다. 사회의 이념으로 무장한 자신의 정신조차도 포기하게 만든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해준다. 외면으로 치중했던 인식을 안으로 향하게 해준다. 성공과 의무에 몰입했던 정신을 자기 자신에 몰두하게 해준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자기 자신을 창출하게 한다.

매일 새로운 인생의 매력

외부 세계는 변화무쌍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나 그대로다.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해가 뜨기도 하며 바람이 불기도 하고 바람이 안 불기도 한다. 밤이 되기도 하고 낮이 되기도 한다.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다. 세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든다. 그런데 인간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지쳐만 간다.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삶에서 새로움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구절로 세상살이를 평가한 바 있다. 허무와 회의, 절망이 삶을 지배한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전혀 없으니 동요될 마음도 없다. 하지만 이것은 평온함과 전혀 다르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적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모조리 빼앗긴 상태일 뿐이다.

단조로움과 무미건조함이 느껴진다면 큰일이다. 인생이 지겨워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인생이 지겹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위기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지겨워지는 이유를 “오랜 시간을 보낸” 것에서 찾고 있다. “지식과 통찰력의 부단한 증진도 없이” 그리고 “사물들을 더 명백하게 이해하는 성과도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낼 경우에 삶이 지겨워진다고 보았다. 이런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삶에서 “견딜 수 없는 지겨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식은 지혜로 거듭나야 한다. 지식은 통찰력의 씨앗이다. 씨앗이 풍부할수록 수확도 풍부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이해가 명백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다. 삶에 대한 지혜가 쌓여야 한다. 삶의 매순간이 소중한 순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모르면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알면 알수록 질서와 규칙을 발견하게 된다. 삶은 그런 것이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해를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재미난 경기를 하듯이 임할 수 있다.

지식과 통찰력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지식과 통찰력은 “경험의 결과”인 동시에 “변화의 결과”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지식과 통찰력은 삶의 여러 단계를 거친 변화의 결과이기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쌓이기도 한다.

지식과 통찰력이 증진되면 “사물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면을 보여”준다. 보지 못했던 측면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지식과 통찰력이 가져다 준 새로운 시선은 이성적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될 수도 없는 것이다.

삶의 여러 단계들을 거쳐 가면서 모아진 삶의 지혜들은 삶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 해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매일 새로운 진리를 터득한다”면 그만큼 성실한 삶은 없을 것이다. 똑같은 것에서도 매일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매일 똑같은 사물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면 한시도 게으르게 보낼 수 없을 것이다.

만족을 하면 자신의 영혼을 팔겠다면 파우스트는 욕망의 화신이었다. 파우스트가 대표하는 인간형은 노력하는 인간, 행동하는 인간, 추구하는 인간이다. 괴테는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방황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노력은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행동은 추구하는 열정에 의해 지속된다. 욕구와 욕망은 파우스트 박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었다. 파우스트는 기력을 잃고 쓰러지면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에오넨 은 그리스어로 호 아이온 이라고 하고, 현상 세계의 영원성, 무한한 시간을 뜻한다. 죽기 직전에 파우스트가 입에 담았던 말이다. 지상에서 보낸 시간들이 현상의 영원한 시간 속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이다. “머물러라, 너는 너무도 아름답구나”라는 첫 번째 행은 얼핏 들으면 파우스트가 만족하고 있는 듯하지만 다음 두 행을 연결해서 들으면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이 세상에서 보낸 삶이 지극히 아름답게 여겨지고 영원히 머물고 싶지만 결코 영원한 시간 속에 머무를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파우스트는 죽어가면서까지 욕망을 불태우고 있었다.

이 세 줄에 불과한 문장들로 나중에 신과 메피스토펠레스가 논쟁을 벌이게 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가 만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대로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지려고 하지만, 신은 그의 주장을 묵살하고 파우스트를 구원한다. 그 이유는 마지막 신비로운 합창 속에 담겨 있다. 다음은 괴테가 60여 년 동안 공들인 역작 《파우스트》의 마지막 구절이다.

끊임없이 욕망을 불태운 인간을 승천시킨 이유를 담은 노래이다. 삶이 남겨놓는 것은 부족하다 해도 하나의 업적이 되어 칭송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파우스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기에 구원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굳이 파우스트 박사의 삶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매력적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이 염세주의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라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염세주의 철학은 고통과 상처를 주시하지만 이를 통해 매력적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천재의 삶과 불후의 명작

천재는 어떤 사람일까? 쇼펜하우어는 누구를 천재라 했을까? 쇼펜하우어는 천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의 저서에는 빠짐없이 천재가 등장한다. 그는 천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애를 썼다.

긴 잠언이다. 생각할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쉬어가면서 읽어야 한다.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쇼펜하우어는 재능 있는 사람과 천재를 비교하고 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돈과 명성을 위해 일한다고 한다. 이

에 반해 천재는 자신이 창조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쇼펜하우어는 천재가 “창조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천재는 창조 활동을 하는 존재이다. 천재는 창조 활동을 통해 증명된다. 창조는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다. 천재의 삶은 창조적인 삶이다. 천재는 창조를 위해서만 온 정열을 불태운다. 천재의 창조 활동은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킨다.

천재의 활동을 몰아붙이는 원동력은 자신이 본 것이나 느낀 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본능이다. 이 본능이 그를 창조 활동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천재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이다. 완전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천재는 방황과 고뇌를 거듭하게 된다. 완전한 표현만이 심적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천재의 삶에는 만족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천재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한다. 적당한 일조량과 적당한 토양과 그 속의 수분만 있으면 나무는 알아서 열매를 만든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위해 더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폭풍과 같은 방해 요인만 없다면 나무는 뜨거운 태양 속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깊은 땅 속에서 수분을 빨아들여 열매를 만든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나무는 결과물을 탄생시킨다. 기존에 없던 그 무엇을 이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천재도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같은 종류의 창조 활동을 한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천재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해본다. 그는 “그 결과를 획득하고자 애쓰는”, 즉 “이 분명한 사고와 통찰의 산물을 획득하고자 애쓰는 것을 의식함과도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천

재는 자기 삶의 결과물을 획득하고자 애를 쓴다. 자신의 삶을 통해 생각하고 통찰한 산물을 획득하고자 애를 쓴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범인은 자기 삶에 대한 결과물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을 모으거나 자식을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재의 산물은 그런 외적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천재는 동시대인들로부터 갈채를 받고자 하지 않는다. 천재는 보상도, 동정도 바라지 않는다. 범인들이 그토록 안달복달하는 행복도 안중에 없다. 천재는 오로지 “후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인류를 위해서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오로지 자기 “작품을 완성하는 일에 고군분투하도록 강요하는 본능”으로 인해 천재는 스스로에게 실 틈을 주지 않는다. 천재의 삶은 치열하다. 쇼펜하우어의 설명처럼 태어날 “후세들을 위해 알을 지키고 부화하도록 준비하는 곤충만큼이나 결사적이다.”

“자신의 작품을 신성한 수탁물로서, 존재의 참된 결실로서, 그리고 인류의 공동 소유물로서 완성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 이것은 천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가 된다.” 천재는 자신의 작품을 신성한 수탁물로 간주한다. 천재에게는 자기 작품이 종교와 같다. 신앙으로 자기 작품을 대한다. 그것은 신이 준 것이며 태어나는 것도 신과 동일하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는 것이다. 천재의 작품은 “인류의 공동 소유물”이면서 참다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

그리고 “존재의 참된 결실로서” 천재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시키고자 노력한다. 자신의 작품이 삶의 궁극적인 열매이기 때문이다. 천재는 삶을 한 순간도 헛되이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삶 전체가 “존재의 참된 결

실”을 위해 바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자기 삶의 참된 결실에 온 힘과 정열을 쏟는 것이다. 이것이 천재의 목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천재는 가시관을 쓰지만 언젠가는 월계관으로 피어날 것이다.”

천재는 자신이 쓰는 가시관이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을 잘 안다. 어쩔 수 없이 쓴다는 표현이 더 맞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고뇌는 천재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건”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뇌는 헛된 고뇌가 아니다. 천재는 결사적인 노력 끝에 작품을 완성했다는 확신이 들면 “제 알이 영양을 섭취하여 유충으로 자랄 수 있는 곳에 알을 낳아 놓고는 안심하고 죽어가는” 곤충처럼 고된 작업의 마지막을 선언한다.

마지막은 천재만이 안다. 마치 하나의 형상을 받아들인 표범이 마음속에서 가둬놓기를 포기하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런 자세로! 마지막을 받아들인다. 모든 긴장과 집중은 다시 풀린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질주하던 의지, 상승하고자 했던 그 의지는 다시 자유로움 속에 자신을 맡긴다. 완성만이 가져다주는 안식이다. 천재는 안심하며 숙면을 취한다.

독서와 사색의 차이

인생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내면이다. 내면이 아름다우면 인생도 아름답다. 외면을 가꾸는 것은 타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각박하다. 바깥쪽으로만 향한 정신은 사소한 말에도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고 흥분한다. 자

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삶에 긍지를 가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은 내면을 가꾸는 일을 통해 가능하다.

내적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사색을 통해서만 진정한 효력을 발휘한다. 사색만이 삶을 삶답게 해준다. 생각 없이 사는 삶은 쉽게 길을 잃는다.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다면 독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독서는 사색의 대용품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독서는 사색의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의 원천이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만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는 차선택이다.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색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에 언제나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이런 사람은 “자유분방하게 사고하며 자기 자신에 따라 사고하며 올바르게 사고한다.”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다. 즉 “사고의 원천이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는 독서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다른 사람의 정신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 더 이상 자신을 챙겨줄 수 없는 상황에서 독서는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독서는 사색의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고를 이끌어 가도록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책은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알맞은 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서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자신에게 잘 맞는 책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책들은 그릇된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독서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어지럽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의 강력한 사상을 내동댕이치는 것”과 같다. “마치 식물 표본을 보기 위해 또는 동판화의 풍경을 보기 위해, 구속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으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세계, 자연, 있는 그대로의 사물 세계가 진정한 책이다. 우리는 이 책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하지만 남의 말이 담겨 있는

책을 읽는 독서는 조심해야 한다. “독서는 정신으로부터 탄력성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용수철의 탄력과 정신의 탄력이라니 참으로 멋진 비유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다. “근육은 쓸수록 강해지지만 신경은 많이 쓸수록 약해진다. 그러므로 근육은 적절한 긴장과 압박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것이 좋지만, 신경은 최대한 긴장을 피해야 한다.” 정신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모든 창조는 구속되지 않은 정신의 산물이다. 의지를 통해 정신을 몰아붙이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도 한계를 넘어서면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게 된다. 광기도 그 중의 하나다. 정신이 견뎌내지 못하면 미쳐버리는 것이다. 정신이 미쳐버리면 통제는 불가능하다. 정신이 해야 할 일을 해주지 않으면 정신은 딴 곳으로 간다. 통제를 벗어난 정신은 돌아오는 길을 잃은 채 방황을 거듭한다.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바로 광기다.

정신을 챙기지 못하는 삶은 아름답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는 정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정신을 위한 것이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차라리 책을 멀리 할 것을 요구한다. 독서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스스로 사색하라는 것이다. 매 순간 남의 말을 인용하는 선부른 지식놀이는 스스로 경험을 통해 도달한 경지가 아니라서 모래

위에 쌓은 탑 같다. 어느 순간 쉽게 무너져버리는 엉성한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이 지혜가 될 때까지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이 가진 탄력성을 언급했다. 정신의 탄력성은 남의 말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순수한 지성만이 강한 탄력을 지닌다. 정신의 탄력성은 자연스러울 때 나온다. 탄력적인 정신은 유연한 정신이며 막힘이 없는 정신이고, 도가 통한 정신이다.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을 구하고 찾아내는 정신이다. 정신이 탄력적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세계를 책 삼아 탐독하는 정신도 바로 이런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이다.

반면에 독서는 자기 생각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 자신의 정신을 구속시키는 것이므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틈나는 대로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의 사상을 갖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광신도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탄생한다. 자기가 믿는 의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자기가 따르는 그 의견이 자신의 의견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지나친 독서”는 정신에 해만 끼칠 뿐이다. 깨달음이 없다면 독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독서는 오히려 정신에 해롭다. 이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둡고 ,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우니라 ”는 공자의 말과도 비교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포우프의 말을 인용한다. “항상 읽지만, 결코 읽혀지지 않는다.” 집중력이 없는 독서도 이와 같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다 독서하는 것이 아니다. 인식이 동반되지 않은 독서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로마의 작가 플리니우스는 “물툭 논 물타 ” 라는 명언을 남겼다. 번역하면 “많이 읽되 잡다하게 읽지 말라”는 말이다. 정돈되지 않은 혼잡한 서재가 쓸모없듯이 지식도 “사고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 것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 개별적인 진리들은 공사장의 벽돌과 같다. 그 벽돌들을 잘 쌓아야 쓸모가 생긴다.

개별적인 진리들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 비교되며 관계를 가지고 정리될 때 “완전히 자신의 지식”이 되며 그런 지식만이 “자신의 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식은 힘이 될 때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관계를 맺고 정돈하는 것은 사색과 숙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숙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숙고한 것만을 알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내용들은 “완전히 자신의 지식”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도 발휘될 수 없다.

독서는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색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표현하면 “의지에 따라 사색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사색을 원한다고 사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불이 적당한 바람에 의해 더욱 강해지듯이 사색은 “사색의 대상에 대한 관심”에 의해 활력을 받는다. 관심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독서는 관심이 없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관심 없는 독서는 쉽게 사라진다. 의지에 따라 습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색은 진정한 관심이 따라줘야만 가능한 것이다. 사색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기본 입장이다.

사색은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의지의 철학이라고 한다. 의지는 삶을 현상에 얽매이게 하기도 하고 해탈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사색은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후자의 영역에 속한다. 해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색도 그렇다.

책을 펼치면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지만 사색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색에서 사상으로의 발전은 모든 것이 적당해질 때 가능하다. 사상은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참으로 멋진 말이다. 빠르

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기란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안달복달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 자체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기다림과 여유는 사색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다. 사색이 가능하면 사상은 적당한 때에 찾아온다.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중요하다. 집착하고 연연할 때 사상은커녕 사색조차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진리가 “창녀”가 아니라는 주장과도 맞물린다. 진리는 사색처럼 아무에게나 몸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상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남다르다.

사색의 관건은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은 연인과 같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약해서 그토록 연연하던 연인도 “보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사라지는 법”이다.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은 기록이다. 그래서 기록은 철학하는 첫 번째 자세이다.

사상은 기록해야 한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접한 수많은 것들을 모두 기억할 수 없다. 생각, 즉 사색을 직업으로 하는 철학자는 생각의 흔적들을 쉬지 않고 적어두는 버릇이 필요하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그 생각은 허공 속으로 날아가버린다.

위의 인용문은 독서와 기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책을 읽을 때 책 속의 문장들을 기록하지 말라고 말한다. “기록한다는 것은 망각에게 넘겨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잊혀지는 가장 빠른 길이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가능한 빨리 기록”하라는 요구와는 정반대이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요약하면 자기 생각은 빨리 기록하고 남의 생각은 기록하지 말라는 말이 된다. 남의 말, 즉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든 문장을 기록하는 것은 곧 망각에게 넘겨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떤 문장들을 발췌, 수집하여 기록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덧붙여 쇼펜하우어는 기억이 순종하도록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기억에 독재를 가하라는 것이다. 어떤 책의 문장이 생각 안 나도 쉽게 그 책을 다시 손에 들고 찾아내는 버릇은 버리라는 것이다. 기억을 성가시게 자극해 떠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성가시게 굴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독서법은 책 속에서 발견한 좋은 문장이 수많은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 속에 자리잡을 때까지 “기억력이 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독재를 하는 것이다. 하나의 문장이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사색의 씨앗이 될 것이다.

삶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간단하다. 생각이 있어야 삶이 삶답다. 《인생론》은 생각이 삶을 어떻게 키워내는지 알려주는 철학서이다. 생각이 없는 삶은 아름답지 않다. 자기 생각이 있어야 삶이 아름다운 법이다. 인간의 삶을 동물과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에서 시작되는 사상과 진리에서 시작되는 깨달음의 경지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세이다. 이처럼 자신에게 힘이 되는 완전한 자신의 지식과 관련하여 쇼펜하우어는 괴테의 시를 인용하기도 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빌린 것에 불과하다. 고전도 마찬가지다. 이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해도 자기 인생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것을 새로이 얻어 진정으로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새롭게 얻는다는 말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롭게 얻는 것이야말로 삶이 도달한 경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얼마나 새롭게 얻었는가? 이 질문이 삶을 성찰하는 열쇠가 된다.

인간의 삶, 즉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을 바라 사는 것일까? 쇼펜하우어에게 인식은 그의 철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는 깨달음의 경지가 된다. 깨달은 삶은 어떤 것일까?

인간만이 자신의 인식을 고도에 달하게 할 수 있다. 인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요인이며 단순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열쇠이고 인간의 특권이다. “사물에 대한 의식”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인식’의 개념이다. 사물에 대한 의식을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게 하는지는 개인의 문제이다. 깨달음의 경지 또한 성인의 숫자만큼이나 많다.

인생은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삶은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판가름 난다. 인생 말년에 허무함 속에 빠져 허덕이지 않기 위해 정신이 맑을 때 수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사물들과 자연 속의 사물들에 대한 의식을 키워야 한다. 정진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 그때 진리는 미인처럼 다가와주고 자기 자신의 사상이 되어준다. 그동안 너무 급하게 무엇인가 일궈내려하다 보니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다. 이제는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살아보자.

부와 여가의 가치

가을은 열정적인 여름이 가고 성과와 업적을 운운하는 계절이다. 또한 독서를 통해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좋은 계절이다. 독서가 없는 인생은 불

완전하다. 사색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독서는 원하면 할 수 있다.

평생 열심히 일해 부는 축적해놓았는데 무지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발전만을 지향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이런 시대정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인식이 올 때 무너지는 가슴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노동으로 한 평생을 바친 자는 말년에는 인생 자체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이 생각을 점령하게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쾌락만을 위해 살며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이다.

그 무엇보다도 비난받게 될 것은 “부와 여가가 그것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색이 있어야 삶이 여유롭다. 부와 여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인생은 품위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다.

부와 여가의 가치는 쇼펜하우어 삶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사상이다. 베를린 대학교에 제출했던 자기소개를 보자.

쇼펜하우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유와 여가로 요약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살 수 있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생활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기에 삶에 대해 아등바등하지 않았던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행운으로 주어진 삶의 여유를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오로지 철학적 사색에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한시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규칙에 따라 살았다. 그가 모범으로 삼았던 칸트처럼 정확하게 살았다.

삶의 여유란 치열한 과정 없이 불가능하다. 인생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았던 쇼펜하우어는 삶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사색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이것도 어쩌면 철저한 직업 정신이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악서를 안 읽는 것도 기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좋은 책은 자주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고 했다. 배움에 있어서 반복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일상의 노동과 관련한 반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반복 학습을 말하는 것이다.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읽을 때 책 속에 언급되는 “문제들의 관계가 보다 잘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 “결말을 알아야만 비로소 발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 그만큼 고전은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나타나는 법이다.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처음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는 같은 시간일 수 없다.

“처음과는 다른 인상, 다른 기분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의 참된 의미에 접근”해 가는 독서법은 반복된 독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복 없는 독서로는 이런 접근이 불가능하다. 좋은 문장은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언제나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양한 현상에서 단순한 보편성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며 또 하나의 인식이다. 하나의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훈련이 바로 이런 것이다. 다양한 각도를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할수록 관찰하는 대상은 완벽에 가까운 보편성을 띄게 된다.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다른 인상으로 책을 접하면 다른 이해가 다가온다. “마치 하나의 물체를 다른 조명 속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의 물체를 한 번 보았다고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다.

고전은 인류의 재산이다. 시대가 낳은 천재들의 고민이 들어 있다. 천재는 지식의 축적에 의해 탄생된다고도 한다. 고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만큼 어렵기도 하다. 고전의 가치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고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말을 들어보자.

고전이 고전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언어의 완벽함, 다른 하나는 정신의 위대함이다. 위대한 정신은 깊은 우물처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고전은 무엇 하나도 쉽게 주지 않는다. 고전이 전해주는 것은 느리기만 하다.

“참된 의미의 철학은 비록 그 작용이 느리기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유형의 힘이다.” 모든 인생은 위로를 구한다. 참된 의미의 철학은 언제나 느리게 진행되는 법이다.

스스로 언어의 완벽함에 가까이 갈 때, 스스로 정신의 위대함 가까이 다가설 때 고전이 읽혀지게 될 것이다. 책이 읽혀질 때는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항상 읽고 있지만, 결코 읽혀지지 않는다”는 포우프의 말을 기억하자. 덧붙여 쇼펜하우어가 청년시절 그를 인도했던 문구를 한 번 읽어보자.

쇼펜하우어는 이 말을 “나를 인도하는 별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현대인들이 고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말라고도 일러준다. 한마디로 이차문헌에는 관심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오로지 일차문헌으로서 고전을 접하라는 것이다. 고전은 “옛 사람들의 작품”이지만 흘러간 과거지사가 아니다. 그것은 “참되고 뛰어난 옛 사람들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고전을 통해 인생은 아름답게 변모할 것이다.



*Parerga und
Paratipomena*

행 복 에
대 하 여



행복은 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은 어떤 때 행복을 느낄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질문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삶의 목적은 언제나 행복이다. 하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도 개인차가 있다. 누구는 이것으로 행복을 느끼지만 누구는 이것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누구는 큰 행복을 느끼는데 누구는 조그만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고민은 그래서 복잡하기만 하다.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운명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각기 다르다. 인간의 행복은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면의 모습은 각자가 모두 다르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지적 수준도 다르다. 아는 게 다르고 관심분야도 다르다. 공통점은 각자 주어진 내적 요인에 따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행복” 뿐 아니라 “삶 전체에 근본적인 것”은 오로지 “내부에 존재하며 인간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근본 사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면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 요인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일반적인 견해에 전혀 다른 견해로 맞서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은 그것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부유한 상황에서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기쁨과 불쾌감은 인간이 느끼고 의욕하고 생각하는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느낌과 의욕 그리고 생각, 즉 내면의 활동이 일궈낸 결과이다.

“동일한 외적 환경 속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각기 다르며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각기 다른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문장과 함께 시작했다. 세계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표상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세계를 갖고 있다는 말도 된다. 나의 표상은 너의 표상

과 같을 수가 없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각자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한다. 모르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이 많다. 인간의 의식이란 영성하고 느슨하게 짜여진 거미줄과도 같다. 쇼펜하우어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릴케는 《말테의 수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보는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주체는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물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전 같으면 막다른 골목이었을 곳이 이제는 다음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들 때면 생소하고 낯선 경험을 하게 된다. “아니! 내게 이런 면이?”하는 놀라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게 보이지 않을 때, 익숙했던 것이 낯설게 보일 때, 우리는 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면 그 세계는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이 염세주의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다. 자신의 표상은 현상일 뿐 본질은 아니다. 본질이 아니므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아무리 바뀌어도 존재 자체에 끼치는 영향은

사소할 뿐이다. 하지만 표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자기가 존재하는 삶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목을 매고 달려들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새로운 인식은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이다. 그것을 알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된다. 생각이 바뀌면 자기 자신이 바뀌고 자기 자신이 바뀌면 삶도 바뀌게 된다. 보는 방법이 바뀌면 세계는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세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바라볼 때 삶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 의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 속에 갇혀”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식을 갖고 있다. 살아 있는 생명체의 관전은 의식이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간의 존재 가치는 다르게 책정된다. 어떤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것을 죽음으로까지 간주한다. 의식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구속한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생각의 틀은 고정관념이 되기도 한다. 관념이 고정되면 생각은 탄력을 상실한다. 생각이 탄력을 잃으면 모든 것이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 탄력을 잃은 생각은 세상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 편견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다. 그런 세상은 궁

색하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한 구절은 깊은 인식을 가져다준다.

새는 날 수 있는 존재이다. 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새는 최초의 존재 형태인 알을 깨야 한다. 자신을 보호해줬던 알이 자신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껍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면 과감하게 깨야 한다. “알은 세계이다”라는 말은 쇼펜하우어의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말과 비교될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표상은 깨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인식으로 세계를 형성해내야 한다. 헤세는 알을 새가 스스로 깨야 한다고 말한다. 알을 깨는 것은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표상을 만들어주는 자신의 의식은 어느 정도로 넓은가? 자신의 의식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의식이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누구나 자신의 의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마련이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의식 속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런 세계 속에서 자기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공자도 “극기복례위인 ” 이란 말을 했다.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전의 것을 근본으로 하되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헤세의 비유에 의하면 새가 자신의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고, 쇼펜하우어의 말로 하면 “의식 속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답답해하며 새로운 인식을 갈망하며 살아간다. 후자의 첨단을 달리는 사람이 바로 천재가 아닐까? 천재는 일생 동안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의 길을 홀로 걸어간다. “고뇌는 천재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천재는 자신의 의식을 넘어서려는 노력으로 언제나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간다.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한계를 직면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다. 이것이 천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이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다.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은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외적 요인은 간접적인 영향만을 끼칠 뿐이다. 이에 반해 내적 요인은 삶의 본질과 연결되면서 지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 영향은 직접적이다.

염세주의 철학자의 눈에 비치는 인간은 “가련한 희극 배우”와 같다. 웃고 있지만 안으로는 “모두 고통과 괴로움을 지닌”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다고 외치지만 안으로는 모두 말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핸드폰에 담겨 있는 수많은 사진들은 모두가 웃고 있다. 자신이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 사진들만 모아놓는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자신이라고 타인에게 보여준다. 모든 사진은 행복해 보인다. 누구도 자신의 못난 얼

굴 혹은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각도로 찍힌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은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모두 자신을 멋지게 치장하고 살아가지만 어디선가 치유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곳으로 얼굴을 돌린다. 자신이 병들어 있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웃긴 세계가 아닐 수 없다. 이 웃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희극 배우인 셈이다.

쇼펜하우어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말과 함께 각자의 세계가 다르다고 말한 것은 참신하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세계인식은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쇼펜하우어 철학은 현대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명랑함이 행복을 부른다

쇼펜하우어는 여성의 본성에서 “쾌활함”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여성의 쾌활함은 “현재에 몰두” 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또 “남편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될 뿐이었다. 그래서 쾌활함이 보여주는 여성의 행복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니다. 여성의 쾌활함이 진정한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일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행복의 징표는 웃음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마음속에 명랑함을 지녀야 한다. 이 명랑함은 여성의 쾌

활함과는 다르다. 명랑함은 의존적이지 않다. 명랑함은 진정한 행복을 드러내주는 외적 표현이다. 명랑함이 없는 삶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삶을 가볍게 해주는 것은 바로 명랑함이다. 행복은 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그 내적 요인 중에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명랑함이다.

명랑함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명랑함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어온다. 명랑해지자고 마음을 먹는다고 명랑해지지 않는다.

명랑함이 마음에 들어오려면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명랑함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 들어온다. 명랑함도 하나의 능력이다. 아무나 명랑할 수는 없다. 누구나 명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명랑한 것은 쉽다. 문제는 상황이 전혀 명랑하지 않을 때이다. 그런 때에 명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명랑한 사람이다.

그래서 문을 항상 활짝 열고 기다려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명랑함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참고 견디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라고 했다.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견뎌내는 것이 관건이다. 힘든 세상,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뎌내며 명랑함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기다림은 고난을 견뎌내며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일컫는다.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아야 하는 이유는 “명랑함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때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어도 명랑함이 들어올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불행에서 벗어나는 생의 전환점에는 언제나 명랑함이 동반된다. 명랑함은 인생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준다. 명랑함은 익숙한 것에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준다. 명랑함은 풀이 죽어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선사해준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내적인 재보 중에서도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라고 말한다. 명랑한 마음이 행복의 관건이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명랑한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은 즐거운 상황으로 변한다. 그래서 마음속에 명랑함이 들어오면 그것을 소중하게 다뤄 고이 간직해야 한다. 명랑함이 다시 나가지 않도록 온 정성을 쏟아 보듬어야 한다. 명랑함을 잃으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삶이 불행에 빠지면 살기 싫어지는 법이다. 삶은 그 순간 위기에 처한다.

명랑한 마음을 대신해줄 것은 없다. 명랑한 마음은 그래서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명랑함의 정도가 곧 그의 행복의 정도”가 된다. 외적 요인은 간접적인 영향만 끼칠 뿐이다. “명랑한 사람에게는 항상 명

랑할 만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란 바로 그가 명랑하다는 것이다.” 명랑 그 자체가 행복의 원인이다. 명랑과 행복은 비례한다.

많이 웃는 자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가 불행하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묵과하고 살아간다. 웃음이 행복의 관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아간다. 찰리 채플린도 “웃지 않은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 라고 했다.

명랑한 사람은 쇼펜하우어 철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인간형인지도 모른다.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식만이 남아 있는 지고의 순간에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아마도 명랑함일 것이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인식하는 것 역시 명랑함이 아닐까. 명랑함을 마음에 품기 위해 금욕고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명랑함을 가르치기 위해 염세주의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웃을 수 있다면 무서울 게 없다. 웃음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준다.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웃음을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웃음은 인간의 전유물이다. 인간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만이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얘기다. 진정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에게는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존재하는 곳에는 오로지 명랑함이 허용하

는 기쁨만 존재할 뿐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자는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느낀다.

건강을 유지하라

행복의 관건은 건강이다. 건강과 관련한 글을 읽으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의 철학은 결코 인생을 폄하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그가 생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서다. 건강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의 염세주의 철학은 생철학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건강은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고 만사에 여유를 가져다준다. 그래서 건강의 유지는 삶의 관건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건강은 행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것에 의해” 결정된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누구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누구는 호들갑 떨며 염살을 퍼운다.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다. 누구는 냉정하게 임하는

반면 누구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날뛰다. 이것은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즐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배부를 때 먹는 음식은 맛이 없다. 하지만 며칠을 굶었다가 먹는 음식은 전혀 다른 맛을 선사한다.

성욕도 마찬가지이다. 젊었을 때는 “매혹적인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늙으면 그것도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만다. 소포클레스도 늙어 성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의 느낌을 “꼭 미쳐 날뛰는 포악한 주인에게서 벗어난 것 같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성생활은 젊음의 상징이고 성에 대한 욕구는 젊은이를 몰아붙이는 채찍과도 같다. 건강은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모두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앞에서 명랑함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쇼펜하우어는 명랑함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건강한 사람이 명랑하다. 건강과 명랑함은 서로 의존적이다. 명랑한 사람은 건강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건강만이 사람을 명랑하게 해준다. 그래서 건강은 행복을 위한 조건이 된다.

명랑함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보다 나은 것이 없다. 명랑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고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명랑할 수 없다. 부와 행복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분이 낮은 노동자, 특히 농부들에게서는 명랑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수 있는데 반해,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우울한 표정을 엿볼 수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으로부터 명랑함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랑함의 뿌리는 건강이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건강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건강이 유지되는 한 명랑함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건강이 유지되는 삶은 언제나 명랑함으로 충만하다.

건강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나친 행위나 방종한, 격렬하고 불쾌한 마음의 동요, 극단적이며 지속적인 긴장을 피해야” 한다. 모든 지나친 행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둘째, 방종한 생활은 지양해야 한다. 계획적이지 않고 내키는 대로 놀고먹으며 사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격렬하고 불쾌한 마음의 동요를 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이며 지속적인 긴장을 피해야 한다. 긴장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권한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운동은 단연 최고이다. 운동 없이 건강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

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부분적인 운동과 전체적인 운동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생리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각 부분의 운동과 전체의 운동이 필요”하다. 부분적인 운동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약속할 수 없다. 전체적인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한다. “생명은 운동에 의해 유지되며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 움직임이 없다면 죽은 것이다. 움직임은 살아 있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움직임에 게으르다면 삶 자체가 게으른 것이 되고, 그런 게으른 삶에는 건강이 획득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건강은 명랑함의 근원이다. 엽세주의 철학자가 하는 말이기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 엽세주의 철학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건강한 삶은 엽세주의 철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많은 이들이 엽세주의는 삶을 거부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절대로 삶 자체를 거부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삶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행복은 명랑함에 의해 결정되고, 명랑함은 건강에 의해 규정된다. 이것이 엽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의 핵심이다. 건강은 행복의 열쇠다. 엽세주의 철학은 행복한 삶을 바란다. 삶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행복해야 살맛이 난다. 삶의 내용을 바꿔주는 것은 건강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삶은 명랑함과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한다.

“똑같은 외적 상황이나 사건”이라고 해도 “건강하고 원기 왕성할 때”와 “병에 걸려 기분이 좋지 않고 안정되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너그려워진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힘이 넘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진다. 하지만 병에 걸려 있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모든 것이 귀찮고 부정적으로만 보인다.

짜증을 잘 내는 사람과는 무슨 말을 해도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리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대부분 나약하고 허약하다. 그래서 불행에 익숙하고 세상살이는 짜증 투성이다. 치밀어 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안달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 현실적 상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대한 사물의 상태, 즉 우리의 주관에 비친 사물의 상태”라고 말한다. 사물은 언제나 그렇게 있을 뿐이다. 태풍이 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망친다고 땅을 치고 오열한다. “사물의 객관적, 현실적 상태”는 사실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비가 올 때도 있고 해가 뜰 때도 있으며 밤이 되기도 하고 낮이 되기도 한다. 사물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태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계, 쇼펜하우어의 말로 하자면 “우리들 자신에 대한 사물의 상태, 즉 주관에 비친 사물의 상태”가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우리의 주관에 비친 사물의 상태”가 사물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관에 삶이 힘들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주관이다. 모든 것은 자기 내면에서 이루어진다.

염세주의 철학자가 말하는 염세주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는 염세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쩌면 염세주의라는 말은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학자들이 붙여준 개념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본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 염세주의자가 되고 마침내 그는 자살을 원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염세주의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살펴보면 커다란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염세주의 철학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이 대목에서 큰 인식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쇼펜하우어 자체를 염세주의자라고 알아왔다. 하지만 앞의 인용문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쇼펜하우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염세주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염세주의 철학에 대해 오해를 해왔다면 지금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이 오해하는 것까지 상관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우울한 인간”과 “명량한 인간”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울한 인간은 수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를 문제 삼고 화를 내는 사람이다. 명량한 인간은 아무리 불행한 일들이 닥쳐도 단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면 그것을 위안 삼아 “명량한 기분”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 둘은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간다.

우울한 인간은 “상상의 재난이나 고뇌”에 노출되어 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걱정하며 살아간다. 그것으로 스스로를 쇠사슬에 묶어맨다. 상상의 재난으로 주눅드는 것이다. 쓸데없는 고뇌에 시달리는 우울한 인간의 삶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현실적인 재난이나 고뇌를 겪는 일은 오히려 적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부풀려 문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울한 인간의 사고방식이다. 주변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망상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던진다.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보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여 적당한 대책을 강구하는 인간”은 우울한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인간형이야말로 바로 쇼펜하우어가 요구하는 그런 염세적인 인간이 아닐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적당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인간은 예기치 않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 매사에 조심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줄지도 모를 일이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은 우울한 인간의 시선과는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는 관건이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염세주의 철학 자체를 오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신경 조직이나 소화 기관의 병적인 증상이 선천적인 ‘우울증’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 염세주의자가 되고 마침내 그는 자살을 원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지향하지 않았다. 염세주의 철학은 염세주의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염세주의 철학은 염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다른 지향에 도달하고자 할 뿐이다. 염세주의 철학에 있어 염세주의는 목적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우울증은 치유되어야 하는 병이다. 우울증이 박차를 가하면 삶은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염세주의자가 된다. 거의 모든 염세주의자들은 자살을 염원한다. 삶을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이게 된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를 길러내기 위해 염세주의 철학을 펼친 것이 아니다.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 염세주의 철학 방식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염세주의 철학은 삶을 위한 철학이다. 인생을 인생답게 해주는 철학이다. 또한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철학

이다. 살아남으라고 일러주는 철학이다. 염세주의 철학은 자살은 해결책
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



*Parerga und
Paratipomena*

‘지 금 여 기 에’

대 하 여



소유의 다른 얼굴

소유는 삶을 구속한다. 가진 게 많을수록 삶은 제한된다. 신경 쓸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필요한 만큼만 원하는 것도 지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런 지혜를 가져보지 못하고 소유에 온 정열을 쏟으며 살아간다. 삶의 목적이 소유를 위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다. 현대인들은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갖고 싶은 것을 갖는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소유욕은 한계를 모르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짧은 행복 뒤에 곧바로 다른 불행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행복이 소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은 얼마나 가져야 할까? 소유의 한계는 어디일까? 만족을 놓고 악마와 대결을 벌였던 파우스트 박사는 지지 않았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악마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소유는 어느 정도일까? “소유에 대한 욕망은 어디까지가 합리적인지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소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소유에 대해 한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적인 양”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만큼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만족을 느낄 때도 있다. 상대적인 양은 필요로 하는 양과 소유하고 있는 양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소유하고 있는 것만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은 마치 분모가 없는 분자처럼 무의미한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욕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양”으로 여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은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야 가능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물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물은 그에게 결여된 것이 아니다.” 결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필요한 데 없을 때 결여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다. ‘무엇이 없다’는 느낌은 그래서 그 무엇에 대한 인식이 먼저 앞서야 한다. 그 인식이 없다면 그 무엇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결여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무엇이 없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그 느낌이다. 이 소유욕은 인간의 정신을 결여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 이외의 것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결여된 것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백배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 중 단 하나가 결여되어 있다 하여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불행은 결여의식에 의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사람마다 소유의 방향과 내용은 다르다. “사람들에게는 각기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사물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각 사람에의 마음속에 비춰진 사물의 형태와 내용 또한 다르다. 결국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시작하는 문장인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말로 돌아간다.

사람마다 다른 “시야의 범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정해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욕구 범위”를 결정한다. 건물생심 이란 말이 있다. 어떤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시각에 의해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역으로 말하면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시각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시야와 시각을 갖고 안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행복과 불행은 눈에 들어온 사물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대상이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장애로 인해 그 대상을 획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 행복과 불행은 소유욕의 여부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행복은 금방 사라진다. 그 다음 불행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것은 소유욕에 의해 연결되고 그것에 의해 불행이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점령하게 된다.

이에 반해 “시야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시야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의 막대한 재산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또 부유한 자는 어떤 계획이 실패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부른다.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기 때문이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진다.” 바닷물은 갈증을 가중시킨다. 부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욕심을 부른다. 소유는 마음을 옅어매는 사슬과 같다. 가진 게 많을수록 그만큼 얽매인 게 많아진다.

돈에 대한 욕망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돈을 욕망하며 인생에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문제인 것이다. 돈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간편한 교환의 대용물로 고안된 것이다. 돈이 없으면 원활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비난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돈이 “절대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재화다. 다른 재화들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일 뿐이지만, 돈은 그렇지 않다. 돈은 한마디로 절대적이다. “돈은 추상적으로 모든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모든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재화는 돈뿐이다. 바로 여기에 삶의 문제가 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순간 인간은 돈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언제나 돈만 생각하며 살아갈 뿐이다. 그런 사람의 정신 속에는 자기 자신 대신 돈이 들어가 있다. 자신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삶은 돈을 위한 삶이지 자신을 위한 삶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삶을 위한 돈이 되어야지 돈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생각은 돈, 즉 재산을 도구적으로 보고 삶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인생은 쾌락을 추구한다. 행복을 바라지 않는 인생은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계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돈에 대한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보면서도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덧붙이고 있다.

돈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이것은 어쩌면 획득하기 가장 어려운 생각일 수도 있다. 어떻게 돈을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돈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생각만이 인생에 이롭다고 말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닥쳐올지도 모르는 온갖 재난이나 불운에 대비한 방어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돈은 방어의 수단이다. 돈이 있어야 “온갖 재난이나 불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돈이 필요한 이유이다. 돈은 필요하다. 하지만 행복이나 쾌락을 지향하기 위해서가 아

니다. 그러면 인생은 안전할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

누가 가난한 사람들일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그들은 가난할까?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연구한 철학자이다. 인생을 관찰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다.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한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모두가 부자를 꿈꾸지만 모두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인생의 문제가 있다.

어쩌면 가난을 알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쇼펜하우어가 가난을 관찰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가난과 관련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노라면 가난에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이 비판하는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난에 허덕이는 삶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빈곤한 삶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아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가난을 연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성향을 철학적으로 고찰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은 정말 재미있다. “빈곤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빈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부가 가져단 준 삶이 아니라 빈곤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낯선 것이다. 빈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낭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낭비로 과시하려고 할 뿐이다.

낭비하는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눈에 비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낭비로 자신의 삶을 또다시 빈곤으로 몰고 간다.

진정으로 풍족한 사람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삶에서 여유를 느낀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을 하며 함부로 써대지 않는다. 낭비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경향이다. 인색한 것, 궁색한 것과는 다른 삶이다. 절약하는 삶과 구두쇠의 삶은 전혀 다르다.

가난은 고통스럽다. 빈곤은 고뇌에 찬 삶이다.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상대적 빈곤에 빠지게 한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할 때 쇼펜하우어가 지칭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욕망에 불을 지피는 삶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삶을 쪼먹는 벌레와 같다. 고통을 느끼는 한 삶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래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자기 삶을 스스로 위기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행태다. 쇼펜하우어의 엽세주의 철학은 이런 가난한 삶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

하루를 살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없으면 삶에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무책임하게 끌려가게 된다. 자기 삶은 자신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러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돈을 “온갖 재난이나 불운”에 대처할 방비책으로 생각하면서 “재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빈곤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또 “인간의 운명인 노역으로부터의 해방”은 재산에 만족할 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유를 위해 자신을 노역으로만

내몰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해방시킬 수 있다.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가난으로부터의 해방과 노역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이쯤되면 가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가난에도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가난은 상대적인 것이다.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가난하다는 느낌을 만든다. 없어도 아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물건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그 마음이 문제다. 그 마음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가난을 부추기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삶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몰두하는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타인의 생각에 맞춰서 사는 삶은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이라고 볼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그런 삶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약한 삶이다. 그런 삶은 자기연민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 자기 삶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의 특수한 약점”은 바로 인간이 표상하는 동물이라는 점이다. 표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표상 속에서 타인의 표상을 그려낼 수도 있다. 즉 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쉬지 않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소리다. 표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인간은 명예나 지위 혹은 명성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칭찬은 명예, 지위, 명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인간은 칭찬을 좋아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요구한다.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칭찬에 의한 기쁜 감정은 “행복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칭찬에 의해 생겨나는 행복은 타인의 견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칭찬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한다. 본질적인 행복은 남의 칭찬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남의 칭찬 따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칭찬은 오히려 구속이며 자유는 모든 구속을 지양한다. 행복은 칭찬을 들으려는 마음을 버릴 때 가능해진다.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는 “마음의 안정과 독립”이다. 진정한 마음의 안정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될 때 가능한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타인의 의견에 마음이 흐려진다. 남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잊게 된다. 결국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 수 없다. 그런 삶은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독립된 삶은 진정한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고민은 행복한 삶을 위해 버려야 할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빼앗아간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자기 고유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만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잃고 만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채운 내면은 출구 없는 미궁과 같다. 마음속에 그런 미궁을 만드는 것은 자기 탓이다. 칸트의 말을 빌리면 미성숙한 인간이다.

칸트는 계몽주의 철학자이다. 잠을 자고 있는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무능할 뿐이다. “무능이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인도 없이 사용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비판하는 쇼펜하우어의 생

각과도 비교될 수 있는 문장이다. 남의 견해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다. 타인의 생각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와도 같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사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숙고하여 올바르게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그 평가에 남의 견해는 배제된다. 사물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내려야 한다. “사물의 참된 가치”는 자기 자신만이 찾을 수 있다. 타인이 발견한 가치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에 맞는 가치는 타인의 인도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의 안정과 독립을 위해 반드시 인식해야 할 말이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단락을 살펴보자.

인간은 의식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의식은 표상으로 구성되고 모든 표상은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 인간의 의식은 표상으로 채워져 있고, 표상은 다른 사람의 표상을 연상해내면서 일종의 사회를 이룬다. 인간은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에 너무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에 얽매어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다른 사

람들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식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자신의 생각은 무가치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자기의식 속에 살아야 할 인간이 타인의 의식 속에 살면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동 속에서 소용돌이치게 된다. 그때 발생하는 어지러움은 위험하다. 의식을 잃어버린 식물인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말로 표현하면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것들

인생은 다양한 연령층을 관통한다. 어릴 때는 어릴 때의 고통이 있고, 젊을 때는 젊을 때의 고통이 있다. 그리고 노년에는 또 다른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생철학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노년에 대한 고민은 그 어떤 철학보다 심오하다. 인생을 인정하기 위해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기 때문이다. 늙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래서 늙음을 대비해야 한다. 사람이 늙으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늙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타인의 의견을 생각함으로써 걱정, 번민, 고뇌, 분노, 불만, 초조, 질투, 증오 등의 감정이 발생한다. 이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감정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감정들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된다. 여기에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스며 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간단하다. 행복은 “마음의 안정과 만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음의 안정과 만족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허영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허영심을 억제하고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다. 바벨탑처럼 높이 솟아오른 허영의 탑을 무너뜨려야 한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허영심이라는 가시를 우리의 육체로부터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 가시가 제거되면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은거 생활을 권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다. 사람들과 만나면 쓸데없이 에너지만 소비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은거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되며 따라서 자기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고독 속에 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때, 그래서 자기 삶을 순수하

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자가 된다.

서서히 성숙할 것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서서히 성숙해 가는 인내가 필요하다. 세네카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고 했다. 왜 세네카는 인생을 예술과 비교했을까? 그것은 예술 작품과 같은 업적을 남겨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짧은 인생은 속절없고 허망하다. 영원에 비하면 인생은 너무 짧아 허무하다. 하지만 인생에는 불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는 마음은 명성에 대한 갈증을 의미하며, 그 마음 또한 일종의 허영심에 해당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허영심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의 허영심을 “인간적인 물자체” 라고 변호했다. 그는 “가장 상처받기 쉬우면서도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허영심이다” 라고 말했다.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은 허영심을 버릴 수 없다. 하지만 허영심에 내몰려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허영심이 마음을 지배하면 모든 것이 정도를 지나치게 된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허영심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허영심은 인간적인 물자체다. 이 말은 허영심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버릴 수 없다면 잘 다스려야 한다. 허영심이 없는 인간이 없다. 하지만 허영심 때문에 몰락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그 허영심을 잘 이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도 있다. 우리는 후자의 삶을 원한다. 어느 누구도 허영심 때문에 몰락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쇼펜하우어로 돌아오자. 인간은 표상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허영심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남의 눈치만 보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보통의 인생은 허무하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그런 허무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곤충이 후세를 위해 알을 낳듯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 그런 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비범한 공적”에 관심을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남길 수 있는 비범한 공적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선행에 의한 공적”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에 의한 공적”이다. 선행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반해 “작품은 영속적으로 남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이 평가한다.

작품은 영속하며 불멸한다. 불후의 명작이라는 말도 있다. 썩어 없어지지 않는 작품이라는 뜻이다. 쇼펜하우어는 선행의 예로 알렉산더 대왕과 베다, 우파니샤드를 썼던 작가들을 언급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가들이 써놓은 글 속에서 그의 업적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작품을

남겼던 작가들은 오늘날까지 감동을 전하고 있다. “천재적인 작품은 모든 시대를 통해 살아 움직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베다나 우파니샤드의 경우, 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글을 썼던 작가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작품에 의한 공적을 더욱 높이 평가한다. 작품으로 말하라는 것이다. 업적을 남기고 싶으면 글을 쓰라는 것이다. 모든 시대에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작품을 써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천재적인 작품은 그냥 써지는 것이 아니다. 불후의 명작으로 모든 시대에 기억되는 그런 명성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명성은 오로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성공해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쉬운 일이 아니다. 꿈을 갖는 것은 저주받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포기한 꿈은 변명과 미련만 남긴다. 미련 때문에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만큼 꿈을 갖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다. 좌절은 포기의 다른 말이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낸 자는 꿈을 이룬다. 그 순간이 언제인가는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천재의 작품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열매가 익어가듯이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적당한 빛과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한다. 천재의 작품은 모든 요소가 잘 갖춰져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시간이 필요하다. 천재의 작품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결과이다.

훌륭한 것일수록 서서히 성숙한다. “서서히”라는 말은 염세주의 철학이 전하는 최고의 지혜인 동시에 명령이다. 금욕고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서두르면 설익은 열매가 떨어져 썩어버리고 만다. 불후의 명작이라 불리는 고전은 서두름 없는 집념의 산물이다. 오랜 세월을 거쳐 지속되는 명성은 “그만큼 서서히 나타난다”는 법칙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 요행을 바라서는 이룰 수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명성을 설명하고 있다. “후세에 까지 떨칠 명성”과 “일시적이며 공허한 명성”, “거짓 명성”이다. 후세에까지 떨칠 명성은 “씨앗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성장해 가는 떡갈나무”와 같다.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공허한 명성은 “성장이 빠른 1년생 초목”과 같다. 존속 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진실되지 못한 거짓 명성은 “성장이 매우 빠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뽑혀 버리는 잡초”와 같다. 거짓은 진실에 의해 뽑혀지고 마는 것이다.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씨앗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의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서히 성숙한 나무는 풍성한 모습으로 거둢나며 세상에 드넓은 그늘과 맑은 공기를 제공한다. 불후의 명작도 그런 식으로 인류에 영향을 끼친다.

늪어감을 바라보는 눈

늡지 앓는 사람은 앓다. 그럼에도 늡는 것을 긍지로 삼는 사람은 앓다. 늡음을 부정하는 순간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도 말이다. 인생을 긍정하고 싶으면 늡어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늡어감의 비밀을 인식하면 인생의 비밀이 풀린다. 이것은 시간의 비밀이며 세월의 비밀이다. 현상으로만 다가오는 시간의 공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앓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시간의 흐름을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앓고 늡어감이라는 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인생은 허무함이라는 멍에를 벗을 수 앓다. 허무한 게 인생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인식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전하려 한다. “인식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은 너무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이해할 열쇠를 제공하는 문장이다. 인식의 선물이다. 인식이야말로 최고의 순간이다. 인식의 동의어는 깨달음이다. 인식은 깨달음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식의 눈”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곧 깨달음의 눈이다.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또다시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앓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말을 했는데 다시 인식이 무엇인가? 혹은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 풀리지 앓는 끈이 되기 때문이다.

인식이나 깨달음은 이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성의 논리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다.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인식이며 깨달음이다.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반대 영역으로 넘어가는 위기의 한 지점이 존재한다. 그 지점에서 한쪽으로 한 걸음 더 가면 행복이 되고 다른 쪽으로 한 걸음 더 가면 불행이 된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는 양쪽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행복의 반대쪽에는 불행이 있다. “욕망 속에 존재하는 사물의 주관적인 존재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욕망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아픔이 지속되며 고통과 슬픔이 온 정신을 지배한다.

한쪽은 인식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다. 인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한 세상이 펼쳐진다.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온통 긍정적인 것이 가득하다. 이와는 반대로 “의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복잡하다. 하나의 욕망은 또 다른 욕망과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은 또 다른 존재와 다투고 있다. 의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의지의 충돌로 싸움이요 투쟁이며 경쟁일 뿐이다.

청년과 노년의 차이점

청년 시절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호기심을 발동시킨다. 하지만 노년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암울하다.

청년과 노년은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 청년은 노년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년은 청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모든 세대는 자신들만의 공동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세대마다 정신세계, 의식의 모습이 다르다.

노년은 이 빠진 잇몸, 굽은 허리, 깊은 주름살, 곱지 않은 살결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매끈한 피부와 당당한 모습을 자랑하는 청년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노년의 장점은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추하지만 세월이 가져다준 지혜를 알고 있기에 노년은 소중하다.

젊은이들의 특성은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데 있다.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질주하는 경주마와 같다. 지치고 힘들 때가 되어서야 험떡이면서 멈춘

다. 완주에 대한 보답, 승리를 기대한다. 하지만 달려가야 할 길은 멀고 끝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노년의 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본다. 짧은 과거만이 눈에 들어온다. 짧기에 허무하다. 청년은 인생을 대물렌즈로 본다. 그래서 사물이 아득히 멀리 보인다. 노년은 인생을 접안렌즈로 본다. 그러면 사물이 바로 눈앞에 있는 듯이 보인다. 그 때문에 과거가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청년과 노년은 인생의 시간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노년에 들어서면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생이 짧다. 왜 그런 인식은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사물이 작게 보인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어렸을 적 기억하던 사물들은 어른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면 작아져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물 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있는 그대로다. 변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나의 시각이 변한 것이다.

청년이 보는 인생은 길고 가능성이 많다. “확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 인생”이 청년에게 힘과 용기를 부여해준다. 인생은 언제나 자기편일 것만 같다. 그래서 열정을 불태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인생이 “나이가 들면 덧없이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는 현상으로 보이며 모든 것의 허망함이 드러난다.” 청년기에는 그토록 안달복달하던 것이 노년기에는 덧없이 느껴진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허무함이 지배적인 기조를 형성한다.

인생의 시간은 가을이 지나고 나면 점점 더 빨리 지나간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시간도 비례하며 빨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빨라지는 인생의 시간과 관련하여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쇼펜하우어의 답은 간단하다. 인생의 시간이 짧아지는 이유는 추억이 적기 때문이다. 다음 해에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열정 혹은 정열을 불태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

나이 들수록 주변의 사물들이 “하찮은 일이나 불쾌했던 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공자는 60세를 이순 이라 했다. 깨달은 인생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다. 보통 사람들은 그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이 귀에 거슬린다. 자기 얘기가 아니면 들리지 않는다. 자기 세계에만 갇혀 고집을 피우는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찮고 불쾌한 일이 많아지면 인간은 이런 일들을 기억 속에 담아두지 않는다. 틀어진 마음은 지속되지만 그 내용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 반복해서 생각해야 기억에 남는 법이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런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찮은 일과 불쾌한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억이 점점 없어진다.

“시간은 점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않고 쏜살같이 지나간다. 의식의 거미줄에 걸리지 않고 허무하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흘려 보내면서도 걸려드는 내용이 없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다.

젊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어릴수록 시간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 되고 만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수많은 반복을 통해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소중한 마음을 앗아간다.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으니 다시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서 쉽게 버린다. 다시 생각하지 않으니 “기억에 새겨질 리가 없다.”

인생의 봄으로 알려진 처음 4분의 1의 시기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생각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다. 호기심과 열정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의 그물에 걸려드는 것도 많다. 의식의 내용이 되어 수시로 반복해서 바라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반복과 상기를 통해 추억이 생겨난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반복이 거듭되는 횡수이다. 어릴수록 강렬하게 나타나는 생각의 반복과는 다르다. 연습과 상기의 반복학습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물은 익숙하게 보인다. 지난해에 경험했던 봄이 다시 왔을 뿐이다. 나이가 드는 만큼 경험도 많아진다. 하지만 경험과 추

억은 반비례한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추억은 적다. 경험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은 아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하찮은 일과 불쾌한 일”을 거듭 언급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말이지만 해석은 다르다. 하나의 사물이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똑같은 사물을 다양한 방향에서 고찰함으로써 그 사물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초반에 인용한 문장을 다시 한 번 읽어보자.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무한히 긴 미래이며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극히 짧은 과거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내용은 줄어든다. 허무함만 커져간다.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기 존재를 초라하게 할 뿐이다. 이 문장과 함께 더 강렬한 인식을 가져다주는 문장이 또 있다. “추억의 소재가 되는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추억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경험이 많을수록 추억은 적어진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은 경험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가 진짜 하고자 했던 말은 추억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당시의 체험이나 행위도 지나간 세월을 따라 기억이 희미해진다.” 나이가 들면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많다. 모든 것은 세월과 함께 흐려진다.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이 희미해진다. 노년의 마음은 흐린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듯이 답답하기만 하다.

“먼 옛날의 한 장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 속에 재생되는 일”은 그 옛날과 지금 사이의 시간이 기억 속에 남겨놓은 것이 적기 때문이다. 마치 아코디언이 주름을 사용해 길이를 줄여놓은 것처럼 옛날과 지금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진다. 그 줄어든 사이만큼이나 공기의 양은 적다. “지나간 세월의 사건은 대부분 잊어버려” 아코디언의 몸통을 채워줄 공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코디언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 아름다운 소리는 공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추억이 없는 인생은 아름답지 않다.

잊어버린 사건들이 많을수록 “전 생애가 매우 짧게 느껴진다.” 인생을 길게 하는 비결은 가능한 사건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하고 기억에 담아두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인식

쇼펜하우어 이전의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 죽음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사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하지만 늙음을 부정하는 것이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 것처럼 죽음 또한 인생을 긍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죽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죽음은 철학의 문제고 삶의 문제다. 삶을 알고 싶으면 죽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죽음은 삶과 상극을 이루며 존재한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살아 있는 생물체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죽음은 일상이다. 태어남을 축하해주듯이 죽음을 애도하는 순간도 있다. 태어남을 축하할 때는 멋진 장소에서 하지만, 죽음을 애도할 때는 외진 곳에서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산을 비유로 든다. 우리는 산을 오를 때 오르는 측면만 바라본다. 산의 뒤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산의 뒤편에 있는 죽음은 산꼭대기에 도달했을 때만 볼 수 있다. 청년이 “명랑하고 활력에 넘치는” 이유는 죽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산을 오르는 청년의 눈에는 오로지 정상이 보일 뿐이다. 그 정상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러나 일단 산꼭대기에 이르면” 상황은 돌변한다. 죽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몸이 옛날 같지 않음을 인식한다. 눈이 침침해진다. 노안이 왔다

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깜짝 놀란다. 몸이 회복되는 속도도 옛날 같지 않다. 정상에서부터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의 발걸음을 “치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느끼는 감회”로 비유해서 설명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죽음은 극복될 수 있다. 죽음을 극복하면 삶이 달라진다. 삶과 죽음은 인생의 두 가지 요소와 같다. 하나가 없는 인생은 모순이다. 둘이 함께 있음으로써 인생이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를 스승으로 섬겼던 니체는 신의 죽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탄생을 기대했다.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핵심이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생을 꿈꾸게 되고 영생을 꿈꿀때 종교에 희망을 걸게 된다. 죽음 이후의 영생을 위해 현재의 삶을 종교에 귀의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영생도 논리일 뿐이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려주고 죽음을 직시하게 한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철학이다. 하지만 허무한 인생의 이면에는 진정한 가치가 숨겨져 있으며 쇼펜하우어는 이 가치를 발견하도록 인도한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결코 삶의 허무함을 깨닫고 빨리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다. 삶이 우선이지 죽음이 우선이 될 수는 없다.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삶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삶인 것이다.

늡으면서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사람들은 늡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늡어감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늡어감 속에도 긍정적인 것이 있게 마련이다. 쇼펜하우어는 늡어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인식은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무도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열매를 맺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은 “결과에 따라 판단”된다. 그 전에는 “세상의 처세술”이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속물들의 판단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도 생겨난다.

누구나 삶의 막바지에 도달하면 인식을 갖게 된다.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에 대한 인식이 거침없이 다가온다. 쇼펜하우어는 뒤늦게 찾아오는 이런 인식에 대해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왜 그 전에는 이런 인식을 갖지 못할까? 왜 인간은 노년이 되어서야 삶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성욕을 언급한다.

성욕은 의지와 관련된다. 인식이 아니라 욕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뇌수”가 생각, 즉 이성적인 활동을 주관한다면, 생식기는 “뇌수에 대립하는 극”으로서 모든 육체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욕망의 표출을 주관한다. “생식기는 생명을 유지하고 시간에 무한한 생을 보증하는 원리이다.” 인간은 성기를 사용함으로써 인류에 공헌한다. 짧은 순간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생식기는 “시간에 무한한 생을 보증하는 원리”인 것이다. 인류라는 종이 멈춤 없이 지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존재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 의지의 초점에 성기가 있다. 생식기는 의지의 초점이다. 삶에 대한 의지는 극복되고 부정되어야 한다. 의지의 초점이 생식기이고, 또 그것은 성욕을 객관화한 것이기에 다른 모든 욕망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의지의 확산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한 번 들여다보자. 그는 성욕을 욕망의 정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이 욕망은 무용지물이 된다. 성욕과 인생은 철학이 풀어야 할 가장 복잡한 과제일지 모른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그의 철학에 크게 영향을 받은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문제의 중심에 놓았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리비도는 “성적 충동과 연결된 심리적인 에너지”이다. 쇼펜하우어가 성욕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양할 수 있겠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프로이트는 오히려 그것을 생의 근본 원리로 인정하고 분석해낸 것이다.

노년이 되면 인식이 허락하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인식 자체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욕망의 불이 꺼지고 나면 의지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인식만이 남는다. 그 반대도 성립된다. 우파니샤드의 말처럼 “인식이 생기자마자 욕망은 사라져버렸다”도 가능하다.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4권의 모토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철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철학은 인식을 위한 철학, 깨달음을 위한 철학이다.

쇼펜하우어의 입장은 분명하다. “정욕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때 사물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객관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 악마”와 같은 성욕은 온갖 “변덕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희로애락에 의해 늘 가벼운 정신 착란 상태에 있게” 했다. “성욕이 소멸한 뒤에야 비로소 완전한 이성적인 인간이 된다”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그래서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준다. 성욕의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나면 반대급부로 완전한 이성의 불이 밝혀진다. 발기되

는 성기를 주체하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시절을 종식시키고 사물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이성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노년기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성욕을 극복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비결을 알려준다. 성욕에 내몰리는 한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 되고 만다. 종의 번식에 이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사랑의 정열은 그저 “정신 착란”에 불과하다. 이런 영혼은 염세주의로부터 치유의 지혜를 얻어내야 한다.

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놓아도 “성욕이라는 본능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이다. 성욕은 인식과 관계 없다. 오로지 생의지, 즉 의지와 관계 있을 뿐이다. 의지의 활동은 욕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는지도 모른다.



*Parerga und
Paratipomena*

고 통 에
대 하 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통

고통이 없는 상태

고통은 적극적이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고통과 고독의 함수관계

인생은 참고 견디는 것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와 용기

염세주의적 사고의 장점

견유학파들이 전하는 삶의 지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나의 철학”

고통과 인생



*Parerga und
Paratipomena*

희 망 에

대 하 여



외로운 오아시스와 위로하는 사막

쇼펜하우어의 도움으로 하늘만 바라보며 천 년을 넘게 살았던 중세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극복하게 되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관심을 쏟을 수 있다.

하지만 중세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니체조차도 “우리는 지금도 중세의 빙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아직도 삶과 삶의 주체인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삶과 미래를 그냥 신의 뜻에 맡기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상상으로 만든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따라 실재하는 현재의 삶에 눈을 떠야 한다. 지금 여기가 삶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염세주의 철학은 인생을 관찰했다. 인생은 하늘나라에서 펼쳐질 영생과는 전혀 다르다. 모순도 많고 허점도 많다. 염세주의는 환상은 버리도록 가르친다. “인생은 환상으로부터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견해일 것이다.” 염세주의 철학은 어떤 미화도 없는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가르쳤고,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늙어간다는 사실도 진지한 목소리로 가르쳤다. 죽음을 외면하지도 않는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세계는 지옥이다.” 어떤 좋은 말로 아름답게 표현해도 주변에는 언제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즐비하다. 마야의 베일에 싸여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다.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 허무함에 직면하게 될 때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 홀로 삶과 작별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생론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철학이다. 삶의 기술을 전수하려는 의지로 충만하다.

이번 장에서는 《인생론》중 〈비유와 시〉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살펴볼 텍스트는 ‘오아시스와 사막의 대화’이다. 사막은 모래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고독한 곳이다.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는 주변을 사막으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쇼펜하우어와 니체도 사막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사막은 두 철학자 모두에게 중요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 아래 인용문은 오아시스와 사막의 대화로 친구를 찾지 못해 한탄하는 오아시스를 사막이 위로하는 내용이다.

오아시스는 “꽃이 피어 있는 아름답고 무성한” 곳이다. 오아시스는 “자신과 같은 ‘오아시스’”를 찾으려 한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사막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오아시스는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찾지 못해서 외로워한다. 결국 오아시스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오열한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혼자이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

자신과 같은 존재를 열망하는 이유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초원에서 샘물과 야자나무와 숲을 즐길 눈”을 원하기 때문이다.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한탄하는 것이다. 나의 잘난 모습을 알아줄 존재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것이다. “초원에서 샘물과 야자나무와 숲을 즐길 눈”을 기대하는 마음은 허영심이다. 내 모습을 과시하고 싶는데 그 허영심을 채워줄 존재가 주변에 없는 것이 문제다.

“생명이 없는 황량한 사막”만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죽음만 있는 곳에 오아시스는 외롭게 생명을 지키고 있다. 고독이 오아시스를 휘감는다. 좌절과 절망이 오아시스를 덮친다. “이 외로움 속에서 나의 훌륭함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훌륭함, 아름다움, 풍요로움 이 세 가지가 오아시스의 자기 인식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가득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 그것을 알아봐주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외로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외로움 속에서

는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 무의미해지고 만다. 외로움은 존재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기감 속에서 사막이 위로의 말을 해준다. 사막은 오아시스의 “늙은 어머니”라고 한다. 사막 자체가 “생명과 푸름으로 뒤덮여 있다면” 오아시스가 갖는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주변에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이 있기에 오아시스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만약 오아시스 주변에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가 수두룩하게 많다면 오아시스의 가치와 의미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머니 사막은 인내심으로 참고 견디라고 말한다. 인내심은 오아시스의 특성이며 여행자들이 고마워하는 찬사와 영광의 조건이다. 참고 견디는 것이 오아시스를 오아시스답게 해주는 덕목이다.

오아시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오아시스는 그곳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힘든 길을 견디며 찾아온 이들에게만 생명의 샘물을 선사한다. 염세주의 철학도 마찬가지다. 고독과 외로움을 아는 자에게만 감동을 준다. 인생의 허무함을 직면하고 어떤 가치를 열망하는 자에게 염세주의 철학은 위로의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인내심으로 참고 견디어라.” 늙은 어머니의 마지막 위로이자 삶에 대한 최고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염세주의 철학은 삶에 대한 염증과 거부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삶을 선택한다. 아픔이 있어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고독을 참고 견뎌야 한다. 고독을 견뎌내지 못하면 인생은 쉽게 무너진다. 또 다른 글 속에 담겨 있는 고독을 살펴보자. 쇼펜하우어는 숲 속의 계곡을 소재로 선택했다. 숲으로 둘러싸인 산 중에 우뚝 솟은 바위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같다. 다음은 〈슈바르츠부르크 계곡의 바위들〉이라는 잠언이다.

숲속을 거닐다가 빼죽빼죽한 바위들을 발견한 쇼펜하우어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중에서도 “바위들이 경의를 표하는 우뚝 선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다른 바위들이 경의를 표할 만큼 거대하고 웅장했나 보다. 쇼펜하우어는 그 커다란 바위가 하는 말을 듣게 된다.

“형제들이여”라는 인사와 함께 바위는 말을 시작한다. 주변의 빼죽빼죽한 바위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다. 바위는 형제들에게 종용한다. “나와 함께 오늘을 즐겨워하자.” 염세주의 철학자가 자연 속에서 들은 말이다. 이보다 더 멋진 말이 또 있을까.

그리고 태양으로 시선을 돌린다. 태고부터 계속해서 만물을 소생시키고 있는 햇볕이다. “주위에서 부드럽고 우아하게 희롱”하는 빛이다. 하지만 늘 따사로운 햇살만 비추는 것은 아니다. 바위들은 기나 긴 겨울을 견뎌냈다. “머뭇거리는 겨울이 우리에게 눈 모자를 씌워 주고 고드름 수업을 달아 주었다.”

“그 이후”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 식물들은 무성해지기 시작한다. 봄기운이 식물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숲은 “줄달음치는 시간의 자식들”인 것이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죽고 또 태어나며 생명을 이어간다. 숲은 시간의 자식들이다. 숲은 “강력한 많은 형제들”의 “공동의 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바위들의 심연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바위의 “아름다운 빛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식물은 “부패로부터 태어”났다. 그리고 무리를 형성한다. “식물의 무리”는 바위의 “심연”을 삼키고 “아름다운 빛”을 앗아가며 존재를 위협한다. 바위들은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바위들은 숲이 오기 전 “세상이 태어난 날” “영원”을 보았다. 지금은 식물들의 위협을 받지만 과거에 보았던 영원에 대한 기억이 있어 “온 힘을 다해 참고 버티어라”는 대장 바위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대장 바위는 계속해서 종용한다. “뭉쳐라, 그리고 그대들의 머리를 태양을 향해 쳐들라, 태양이 그대들의 머리 위에 햇살을 던지도록.” 태양은 죽었던 식물들을 소생시키는 존재다. 태양은 바위들을 “희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양은 바위들의 “머리 위에 햇살”을 던져주는 역할도 한다. 태양의 이런 이중적 역할은 바위들이 일면만 보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줄달음치는 시간의 자식들”은 숲의 식물들이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는 현상계를 상징한다. 이에 반해 바위들은 “영원”을 보았다. 영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바위들은 시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영원을 잊지 않는다. 그것이 현재를 견디게 해준다.

영원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태양은 더 이상 희롱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바위의 머리 위에 찬란한 햇살을 던져주는 존재가 된다. 태양은 빛의 근원으로서 바위의 모습을 환하게 비춰주고 이로써 바위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태양에 대한 비유들

태양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태양은 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영원을 상징하기도 한다. 태양은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연을 밝혀주기도 한다. 다음은 〈구름과 폭풍을 뚫고 비치는 태양 광선〉이라는 잠언이다.

폭풍은 “모든 것을 구부리고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폭풍 앞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건재할 수 있는 존재는 구름 뒤에서 자리잡고 있는 태양 뿐이다.

구름과 폭풍이 변화의 원인이라면 태양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 언제나 “평온한 광선”을 내뿜고 있다. 현자는 이러한 태양의 모습을 닮았다.

쇼펜하우어는 “사나운 폭풍”을 “고뇌로 가득 찬 인생”과 연결시켜놓는다. 인생은 고통스럽고 고뇌로 가득하지만 폭풍과 같아서 일시적이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구름에 불과하다. 그 뒤에는 영원의 햇살이 비치고 있다.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염세주의 철학은 삶을 구름과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그런 인생 뒤에 있는 영원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현상적 인생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적인 영원성에 몰두하라는 것이다.

다음은 태양과 관련된 또 다른 글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을 표현한 글이다. <하르츠에서의 아침>이라는 잠언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은 과거와 구별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니체도 1881년 《아침놀》을 집필했다. 자유 정신에 대한 보고를 끝내고 그 완성에 대한 기쁨 속에서 이어지는 영감으로 써낸 글이었다. 《아침놀》 다음은 《즐거운 학문》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절정을 맞이하는 책이다.

25세의 쇼펜하우어는 하르츠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안개가 깔리고 구름이 세상을 뒤덮은 시점에 하르츠의 표정은 침울하기만 하다. “세상은 음침하고 음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두운 측면이 먼저 인식된다. 세상은 고통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때 태양이 나타나 미소를 지었다.” 아침이 선사해준 변화이다. 밤은 지나가고 환희가 느껴진다. 만물이 생명력으로 충만하다. “그러자 모든 것이 유쾌함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태양이 뜨면 모든 것이 환해진다. 인식이 오면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인식이 생기자마자 욕망은 사라져버렸다.” 베다를 설명한 우파니샤드의 말로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마지막 제4권의 모토로 선택한 문구이다. 태양이 뜨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 쓸데없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태양은 산비탈을 비추기도 하고 산꼭대기를 비추기도 한다. 태양이 선사하는 빛 속에서 만물은 “평화와 평온 속에서 안식”을 찾는다. 태양은 “깊고 행복한 환희 속에서” 이곳저곳을 배회한다. 그리고 태양은 산꼭대

기로부터 사랑이라는 화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순간이고 깨달음의 순간이다.

무한한 공간으로서의 대낮

밤이 지나면 아침이 다가온다. 그리고 아침은 낮을 인도한다. 염세주의 철학은 밤을 견디게 하고 아침을 지나 대낮으로 인도하는 철학이다. 낮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선 밤을 인식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시의 형식을 빌려 “무한한 공간”인 낮에 대한 이미지를 전해준다. <소네트>라 불리는 잠언이다.

시가 집필된 곳이 바이마르로, 쇼펜하우어가 어머니 곁에서 머문 시절이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와 진로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1803년부터 1805년까지 2년 동안의 여행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잔뜩 확인하고 돌아왔다. 1805년 4월 20일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때 쇼펜하우어의 나이 열일곱 살이었다. 그리고 1806년 프랑스가 독일을 점령했다.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연이어 터졌다.

당시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쇼펜하우어에게 “너와 함께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그 모든 슬픈 소리들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위의 시는 바로 그런 때 쓴 것으로 어머니가 그토록 견디기 어려워하던 우울한 말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먼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겨울밤을 응시한다. 겨울밤은 인내를 요구하는 위기의 순간이다.

태양을 떠올리지만 태양은 머뭇거리기만 한다. 태양은 “결코 떠오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이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사나운 폭풍”의 소리다. 폭풍이 “부엉이처럼 울어대고” 있다. 무서운 밤이다. “무너져 가는 성벽 위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무기” 소리가 들려온다.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인식은 자신을 보호해줄 방어벽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어할 것도 없이 무기에 맞서야 하는 위태로운 순간이다. 귀신의 소리도 들린다. “무덤들이 열리고 유령들이 나와 사방으로 흩어져 간다.” 위협이 끊이질 않는다. 유령들은 “영혼을 놀라게”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시선을 던지지 않으리라”라고 말한다. 겨울밤, 머뭇거리는 태양, 부엉이처럼 울어대는 사나운 폭풍, 성벽 위에서 울려오

는 무기들의 소리, 영혼을 놀라게 하는 유령들 등에게 눈길 하나 던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그날, 그날 나는 귀에 거슬리는 음성으로 선언하리라!” 그러면 “밤과 유령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도망칠 것이다”라고 시적 자아는 확신한다. 이런 희망 때문에 기나긴 겨울밤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귀신들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

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흐려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밤의 위협적인 존재들이 사라질 것을 확신한다. 시적 자아는 “밝은 빛이 세계에 가득 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다. 세계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 무한한 공간은 “밝디 밝은 푸름”으로 가득 채워진다. 살만한 공간이 된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식이 이런 공간을 가능하게 해 주고 깨달음이 이런 공간을 찾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고슴도치의 지혜—적당한 거리

세상은 견뎌내야 하는 곳이다. 견딜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견뎌낼 가치가 없다면 염세주의 철학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견뎌야 할까? 사막의 오아시스가 견디는 비결은 무엇일까? 숲의 위협을 받고 있는 봉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현재를 견뎌내야 할 것인가? 겨울밤의 귀신들이 위협하는 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나운 폭풍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안개에 짓눌리고 구름에 뒤덮여 있는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품고 다음의 글을 읽어보자.

견디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거리는 적당해야 한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이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다.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되면 가장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고슴도치의 지혜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바짝 달라붙어 한 덩어리”가 된다. 온기를 통해 서로에게 따뜻함을 제공해준다. 떨어지면 얼어 죽는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남는다. “가시가 서로를 찌러”대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우면 고통이 생긴다. 고슴도치들은 시행착오

를 거듭해가며 인식을 얻게 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당한 거리만이 공존을 가능케 해준다. 함께 살고 싶으면 이 거리를 지켜야 한다.

고슴도치들이 서로 달라붙어 한 덩어리를 만드는 추운 겨울날은 “인간 생활의 공허함과 단조로움”에 해당한다. 공허함과 단조로움 때문에 인간은 “사회생활에 대한 욕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불쾌감과 반발심으로 다시 떨어진다.” 고슴도치들이 서로 가시로 찌르는 것 처럼 사람들은 불쾌감과 반발심으로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 이러한 일상의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리, 즉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간격에 대한 지혜를 가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정중함과 예의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성숙한 인간의 징표다. 정중함과 예의는 사람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만들어 준다. 그 간격이 있어야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 사회생활은 “당신의 간격을 유지하라”는 미덕에 의해 유지된다. 모든 미덕에는 약간의 희생이 요구된다. 고슴도치는 “따뜻함에 대한 서로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지만 가시에 찢리는 일은 없는 것이다.” 정중함과 예의를 갖추으로써 일상이 가져다주는 공허함과 단조로움을 완전히 극복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불쾌감과 반발심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지혜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가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음성은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다. “그런데 내적인 따뜻함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한다.” 염세주의 철학은 고독을 지향한다. 자기 자신에게

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뿐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정중함과 예의는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어느 순간 일상의 공허함과 단조로움이 주는 불쾌감과 반발심을 거부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광기를 보일 수도 있다. 고독한 생활은 불쾌감과 반발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고독한 생활은 자기 내면의 온기가 충분할 때 가능하다. “내적인 따뜻함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 내적인 따뜻함이 충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즉 세계의 중심에서 세계를 관조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때 마음에는 평정과 안정이 찾아오고 행복한 삶이 실현된다.

시와 예술작품의 가치와 역할

쇼펜하우어는 예술이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삶을 삶답게 해주는 것이어야 예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고 깊은 좌절을 한 번 느껴보아야 한다.

일상에서는 “진지하고 유용하고 생산적”인 곡식이 우선이다. 특히 현대에는 뭐든지 돈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다. 가치가 없는 것에는 눈길조차 던지지 않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는 곡식들 사이에 있는 꽃을 본다. 꽃은 곡식과는 달리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래서 “쓸모없는 잡초”에 불과하다. 하지만 풍경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꽃들을 “시나 훌륭한 예술작품들”과 비교한다. 시나 예술작품들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예술작품은 삶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고 삶에 유용한 무엇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생산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현대사회는 “진지하고 유용하고 생산적”인 것만을 지향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공허함과 단조로움”으로 심신을 피곤케 하는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나 훌륭한 예술작품”임을 일깨워준다.

시와 예술은 여가와 관련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과는 상관이 없다. 시와 예술은 일상에 열정을 부여해준다. “때문에 예술은 언어의 완전한 의미에서 삶의 꽃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황량한 삶의 터전에서 자라고 피어난 꽃이다. 꽃은 권태롭고 무미건조한 현실 생활에 활력을

넣어준다. 고통스러운 현실 생활을 견디게 해준다. 시와 예술은 내면의 영역에 큰 영향을 끼쳐 “현실 생활 외에 또 하나의 생활인 지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여유가 생기면 일상적인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다. 할 일이 없으면 마음이 안정을 취하지 못한다. 내면이 공허한 탓이다. 하지만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진정한 여유를 찾고 여가를 즐긴다. 그런 사람은 여가 동안에 “순수한 정신적인 활동에 몰두”하면서 고달픈 일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보통 사람과 지성이 뛰어난 사람의 차이점은 여가에 대한 태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보통 사람은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부담을 느낀다. 자유로운 여가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로운 여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들은 “자유로운 여가가 없으면”

불행을 느낀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일상의 때를 벗겨줄 여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시와 예술이 일상에 저항할 힘을 주는 것은 예술이 본질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생의지, 즉 살고자 하는 의지를 뒤로 하고 순수한 인식을 전면에 내세워준다.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의지의 원리지만 시와 예술은 그런 현상의 원리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성욕은 성기처럼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의지를 일정한 틀에 가두고 나면 인식은 의지에 봉사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인식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성기처럼 깊숙이 감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식에는 단계가 있다. 측심연의 비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은 저만큼 인식한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잘못 저지르면 천박해진다”는 경고가 필요하다. 의지에 봉사하는 임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천박한 인식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천박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수단으로 시와 예술을 거론하고 있다. 시와 예술은 생의지를 거부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물을 자기 의지로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게 해주고 사물을 사

물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해준다. 시와 예술의 저편에는 일상이라는 도덕이 있다. 도덕을 넘어서야 시와 예술의 경지를 접할 수 있다. 일상의 한계를 넘어서고 나면 해방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생의지는 본질적이지만 내놓기 꺼려지는 성기와 같다. 생식기는 의지의 초점이라 했다. 시와 예술은 이런 의지의 집합체를 지양하게 한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다. 피카소는 “예술은 일상의 먼지를 영혼으로부터 씻어준다” 라고 말했다.

시와 예술은 나 자신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나를 잊기 위해, 좁은 시야에 갇히지 않기 위해, 나의 한계를 인식하기 위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열정의 불을 붙이기 위해, 내적 필연성을 느껴보기 위해, 사랑을 찾기 위해 세상에 존재한다.

불후의 명작을 기다리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작품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일상에 지친 영혼에 휴식을 준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삶의 흔적인 불후의 명작을 남기기 바랐다. 인생은 시간이란 한계 속에 있지만 불멸의 가능성 역시 주어져 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해도 꺼내놓지 않으면 허무하게 사라진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론에만 그친 지혜”는 “아무런 씨앗도 남기지 않고 시들어 죽는 장미와 같다.” 한 번 뿐인 삶에 책임감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염세주의 철학은 이를 위한 것이다. 모든 인생에는 불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허무한 삶 밖에 남지 않는다.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 그러나 장미꽃이 없는 가시는 많다.” 가시 없는 장미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멋진 인생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어떤 인생도 희생 없이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장미꽃이 없는 가시는 많다”는 것 또한 진리이다. 가시만 있는 인생도 많다.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가는 장미다.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인생이다. 그저 이론에만 그친 지혜야말로 아무런 씨앗도 남기지 않고 시들어 죽는 장미와 같은 것이 아닐까. “내부에 있지만” 그것을 실현시켜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불변이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상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다. 치열한 경쟁으로 일관하는 현상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염세주의 철학은 이러한 현상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준다. 물론 그런 비결은 깨닫기 위해서는 고행이 따라야 한다. 고행은 거듭되는 반복에 의해서 진행된다.

사과나무와 전나무의 대화이다. 이 비유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보여준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사과나무는 자신에 대한 긍지가 충만하다. 하지만 전나무는 겨울이 오면 “너의 무성함을 잃게 될 것”이지만 “겨울에도 지금과 변함이 없다”면서 한결같은 모습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일회적인 인생이니 한 번 살더라도 확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염세주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시간 속에 가둬두는 행위를 옳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염세주의는 불멸을 지향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욕망 속에서 죽어가는 삶을 지양한다.

떡갈나무는 “1년 동안의 삶만을 허락한 다른 식물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떡갈나무는 “몇 세기에 걸쳐” 살아간다. 수백 년을 관통하는 삶으로 “몇 세기 동안 영향력을 잃지 않는 사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상 속에서 주어진 삶이 끝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그 삶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떡갈나무는 다른 화려한 나무들과는 달리 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일상 속에서 떡갈나무와 같은 인간은 “그다지 중요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시간이 그의 진가를 평가할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라고 굳게 믿는다. 세월이 흐르면 그 진가는 제대로 평가될 것이다.

길가에 피어 있는 들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다.” 눈에 띄지 않고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찮은 존재로만 인식될 뿐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들꽃에게서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인식해낸다. 들꽃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은 그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이미지가 되어 남는다. 아무리 짧은 생애라 해도 불멸 가능성은 있다.

어떻게 해서 들꽃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은 불멸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 들꽃은 남을 위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꽃을 피울 뿐”이기 때문이다. 들꽃은 태양과 닮았다. “나는 태양이다! 태양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다. 나를 볼 수 있는 자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하

려고!” 마치 태양이 뜨는 이유가 뜰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처럼 들
꽃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꽃을 피운다. 니체도 쇼펜하우어에게 이런
느낌을 받았다.

쇼펜하우어의 글이 고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썼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글을 썼다.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생 자체였다. 그의 눈은 오로지 삶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생철학의 효시로 보는 것이다.

들꽃의 대답 중 또 하나의 말이 눈길을 끈다. “꽃을 피우는 일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꽃을 피우는 것이다. 나의 환희와 기쁨은 나
의 존재와 꽃 피움 속에 있다.” 꽃을 피우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
행함은 즐겁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니체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자는 정직해야 한다. 여론을 의식해서 꾸미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왜 이웃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가? 몇백 마일만 가도 구속력을 잃어
버리고 마는 견해에 얽매인다는 것은 얼마나 촌스러운 일인가.” 니체의

말이다. 조금만 떨어져도 의미를 상실하는 남의 견해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갖지 못하는 자는 결코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니체는 남의 눈치만 보며 사는 인생은 “게으른 습성”에 의한 것이라고 꼬집어 말한다. 게으른 사람들은 “이웃이 무서워서”, 그래서 “무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한다. 그런 자세로는 어떤 결과물도 내놓을 수 없다.

이성에 대한 비판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칸트의 후계자를 자처했다. 칸트의 철학에서 염세주의 철학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칸트 없이는 쇼펜하우어를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칸트 철학의 대변인으로 머물지 않았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철학을 넘어서고자 했다. 그것이 동시대인이었던 헤겔과 갈등을 빚은 주된 원인이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이성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현실이 정말 이성적이며 이성이 정말 현실적일까?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이성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관념론의 논리에 수긍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비이성적인 원리”에 의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칸트와 관련하여 <칸트에게>라는 시를 썼다.

이 시는 1820년 쇼펜하우어가 32세에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헤겔의 강의시간에 자신의 강의시간을 배정해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던 시기다. 이 시가 먼저 집필되었는지 헤겔과의 갈등이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다.

시의 내용을 들여다보자. 쇼펜하우어는 “나는 눈으로 당신을 따라 창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나의 시야로부터 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칸트의 인도를 따라 간 곳은 “창공”이라고 한다. 형이상학의 세계가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늘에 띄워놓고선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그런 철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믿고 따랐는데 “나의 시야로부터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할 때 쇼펜하우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칸트 철학을 공부한 결과는 고독이었다. 3행부터 6행까지 이어지는 외로움에 대한 고백은 동정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지상의 많은 무리들 속

에서 홀로입니다.” 하늘에서는 칸트를 찾을 수 없고 지상에서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 곁에 아무도 없다는 고독감은 쇼펜하우어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신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그 “황량한 고독을 추방”하려 했다. 하지만 고독은 추방되지 않았다. 칸트의 철학으로는 고독을 극복해낼 그 어떤 가능성도 제공받지 못했던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3행에서 언급되었던 홀로된 상황을 6행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한다. 그리고 “세상은 황량하며 인생은 지루하게 겁니다”라는 문장으로 미완성인 채 끝난다.

이성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좀 더 확실하게 감지하기 위해 이성 비판과 관련한 또 다른 텍스트를 읽어보자. 이번에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대화이다. 어머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식에게 《이솝우화》를 건넨다.

마지막 문장은 반어적이다. 이 아이는 “희망에 찬” 아이로 “나이가 많고 현명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는 고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논리만을 신봉하는 관념론자, 즉 이성주의자를 비유하는 인물이다.

이성주의자인 아이는 동물이 말을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 이상 생각이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논리가 맞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되고 만다. 거짓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솝이 우화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주의자를 정신이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이성에 갇혀 있는 속이 좁은 인간으로 보았다. 자기 논리에 갇혀 다른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성이 “만능 처방”을 줄 수는 없다. 이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을 위하여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읽으며 다양한 고민들을 해보았다. 이 여정 속에서 커다란 인식의 나무를 얻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사고의 씨앗을 심었을 것이며, 어떤 이는 방황의 폭만 넓혔을 것이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빌린 것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어의 책도 역사로부터 빌린 것에 불과하다. 아직 진실로 우리의 것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새로이 얻어 진정으로 그것을 소유하라!” 새로이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내는 진정한 독서 과정이 요구된다.

독서는 혼자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스스로 그 의미를 더듬어가야 한다. 독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니체는 정신이라는 피로 쓰여진 책, 즉 고전을 읽을 때는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된

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피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게으름을 피워가며 책을 뒤적거리는 자들을 미워한다.”

염세주의 철학은 고독한 삶을 권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고자 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고독이다. 자기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가 인용했던 앙겔루스의 말을 들어보자.

진정한 삶을 위해 고독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독 없이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 “완전히 자기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혼자 있을 때뿐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는 자이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에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앙겔루스는 고독과 “결코 친해지면 안 된다”고 한다. 열정을 품되 정들지 말라는 것이다. 고독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염세주의 철학은 고독을 통해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라고, 고독을 통해 인식에 도달하라고 가르친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상당 부분 힌두교와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의 철학은 “독일에 불교를 보급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들 한다. 쇼펜하우어는 금욕고행을 강조했고 살려는 의지를 거부하고 순수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가르쳤다. 그의 철학이 요구하는 삶은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신앙생활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질문은 또다시 반복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사실 정답은 없다. 개인마다 관심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깨달을 수 있는 만큼 깨닫고 죽어갈 뿐이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인생을 사는 것이 관건이다.

모든 삶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다가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그것은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산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염세주의 철학은 이런 삶을 경계하도록 가르친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중국인은 시선이 서로 다르다. 한 명은 외적인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노력을 통해 기계의 작동을 이해한다. 이런 사람은 현상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 다른 한 명은 내용에 몰두한다. 아마 말을 알아듣지 못해 답답할 것이다. 모국어라 할지라도 처음 접하는 작품은 낯설고 잘 이해되지 않는다. 염세주의 철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들이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고 자신을 질책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일 뿐이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복습으로 일관하는 신앙생활처럼 말이다.

이 책에서도 가끔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인용하기도 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였다. 가끔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인용문들도 병렬적으로 인용했다. 정진을 위해 택한 의도된 반복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책을 두 번 읽어달라고 했다. 자신의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 읽는 것”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중요한 음악도 두 번 들으라고 했다. “음악이 말하려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그것을 두 번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은 반복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내용에 대한 이해는 좀 더 높은 차원에 해당한다. 이런 사고를 위해서는 철학자의 말에서 도움을 얻어 연습하는 것이 좋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고 싶은 행동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실현된다고 했다. “행복한 생활이란 활동을 방해받지 않는 생활이다.” 또 “자신의 특기를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활동은 행동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 특기는 일종의 기술로서 행동이나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적합한 훈련이 필요하다.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절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쇼펜하우어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운 니체는 《즐거운 학문》 에 멋진 시 하나를 남겨놓았다. 완벽한 비상에 도달한 새의 모습을 보여주는 〈앨버트로스〉다.

시적 자아는 앨버트로스의 비상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한다. 앨버트로스가 지치지 않고 “아직도” 날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하늘로 솟아오르면서도 날개는 쉬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을 인생으로 바꿔보면 힘든 일상에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상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마치 누군가 떠받쳐주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앨버트로스의 비행은 수월해보인다. 질문이 쏟아진다. “무엇이 그의 목표이며 향로이며 고삐인가?” 앨버트로스에게는 목표도 없고 향로도 없으며 그를 구속하는 어떤 고삐도 없다. 자유롭게 날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놀라운 따름이다.

2연에는 시적 자아의 인식이 담겨 있다. 시적 자아의 눈에는 앨버트로스가 “개선의 비행사”처럼 보인다.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도 잊고, 승자도 잊은 채” 날고 있다. 무아지경이자 몰아의 상태다. 하늘이 그를 “떠받치고” 있다. 3연에서 앨버트로스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처럼” 하늘 “높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만을 준다. “삶이 갈망하는” 곳,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삶이 “질투”하는 것에 대해 그저 “동정”만을 보인다. 이런 인식과 함께 시적 자아는 “그가 나는 것만 보아도 높은 곳에 이르리라!” 고백한다. 앨버트로스의 비상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 이르는 비결을 깨달은 것이다.

4연에서 시적 자아는 앨버트로스의 비상과 함께 하늘 높이 날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감격을 노래한다. 그는 “영원한 충동이 나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노라!” 고백한다. 이 비상을 경험하게 해준 앨버트로스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앨버트로스〉는 높이 나는 새에 대한 노래이자 삶의 무게를 극복하고 하늘 높이 솟아오른 지혜에 대한 노래다. 삶은 고통스럽고 세상에는 수많은 저항이 있다. 바람도 그것의 일부이다. 하지만 앨버트로스는 바람을 비상에 이용한다. 바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바람 때문에 비상할 수 있기에 바람은 희망과 행복의 요소가 된다.

니체가 앨버트로스에게서 얻은 지혜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지혜와 같다. “영원한 충동”을 이용하든 욕망의 불을 끄든 고통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열망은 동일하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지향하는 목적은 같다. 앨버트로스는 삶에 주눅들지 않고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목적은 행복한 삶이다. 《인생론》의 핵심은 행복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행복은 “의지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의지의 눈에 보이는 행복은 현상에 얽매이게 하는 원인으로 망상일 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오로지 “인식의 눈”으로만 보인다. 행복은 인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인식의 눈은 “현재야말로 실재적이고 확실하며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행복한 삶을 위해 젊었을 때는 환영을 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늙었을 때는 허영을 쫓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야 한다. 허영이란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허영심은 니체의 주장처럼 “인간적인 ‘물자체’” 이기에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삶에 대한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년기, 즉 인생의 4분의 1이 봄날처럼 행복한 이유를 깨달으면, 그리고 그 유년기의 눈을 잃지만 앎는다면 스스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염세주의 철학은 인생이라는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에게 위안을 준다.



*Parerga und
Paratipomena*

삶은 불편한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느리게 사는 법을 알려준다. 반복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철학이다. 삶을 부여받은 존재의 의무는 부족함을 알고 부단한 훈련을 통해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삶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망상이 삶을 방해했다면 그것을 버리는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동정한다. 그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고 철학의 길을 걸었다. 그의 철학은 인간애로 채워져 있다. 높은 곳에 있는 삶의 가치를 찾아 고행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건강이 행복을 보장한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육체는 눈에 보이니 쉽게 그 증상을 알 수 있지만 정신은 내면적 문제이기에 그 증상을 쉽게 알 수 없다. 끊임없는 자기 검증으로 스스로를 진단할 수밖에 없다.

명랑함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생철학이 넘고자 하는 산들은 수없이 많다. 첩첩산중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생을 거부하게 하는 위험 요소가 생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삶을 부정하라고 외쳐대는 곡성의 북소리가 귀를 먹게 할 정도다. 염세주의 철학

은 이때 효력을 발휘한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진정한 것을 보려는 순수한 의지를 발동시키는 철학이기 때문이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삶이 권태로워 질 때, 염세주의 철학은 반복해서 읽어야 할 대상이다. 반복은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구원의 열쇠다.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외울 때 그것은 언어를 넘어 정신을 형성한다. 안이한 평온을 지향하는 것이 범인의 성향이다. 하지만 살고 싶으면 생철학의 문장들로 마음과 정신을 채워야 한다. 사는 것이 목적인 그 지혜들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이 책을 완독한 후에도 의문이 가시지 않을 수 있다. 도대체 쇼펜하우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당황하지 말고 재독하기 바란다. 흥분은 배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현상이 다양하기에 인생도 다양하다. 복잡하게만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면 모든 게 간단해진다. 인식을 얻으면 길이 보인다. 깨달음의 순간은 긴 여정을 전제한다. 참고 견디는 것이 인생의 관건인 연유가 거기에 있다. 서두르지 말고 늘 반복하다는 자세로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기 바란다.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얻기 바란다. 삶이라는 지난한 길을 홀로 걷는 당신에게, 이 책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주

《인생론》에 대하여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 유험성에 대하여

2 죽음에 대하여

Der Kunst-Messias

Friedrich Nietzsche

3 지성에 대하여

Von der Kürze des Lebens
Faust

4 행복에 대하여

Demian

5 ‘지금 여기에’ 대하여

Was ist Aufklärung

Von der Kürze des Lebens

6 고통에 대하여

7 희망에 대하여

Schopenhauer Reinbek bei Hamburg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이 전자책은 2차 저작권을 소유한 해당 출판사의 편집방침과 검수를 통해 한국출판콘텐츠가 최상의 품질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양질의 전자책입니다.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인회의가 개발한 전자출판용 공용서체(KOPU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판콘텐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주)한국출판콘텐츠

<http://www.e-kpc.co.kr>